

I Timothy 1-2
Tape #C2614
By Chuck Smith

First Timothy.

디모데 전서 1 장 1 절 말씀입니다.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commandment of God our Saviour (1: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1:1),

And the Greek word is “the royal commandment” of God; it’s a word that is used when a king had made a decree. It is interesting that Paul so often introduces himself as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But here he declares he is an apostle by the commandment of God.

바울은 종종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사도라 표현하곤 했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어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란 그리스 어는 왕이 법령을 반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The word apostle is one who has been sent out; idea of an emissary or an ambassador. And that’s exactly what Paul saw himself, as an ambassador of Jesus Christ, one whom the Lord had sent out to represent him in an alien country. We’re in a world that’s alien to God, but we are God’s representatives here. We are here to represent God on this alien planet. And so “Paul,” one who has been sent out by the royal decree, “by the commandment of God our Saviour.

사도란 ‘보내심을 입은 자’를 가르키는 말로써 보통 개인 사절이나 대사의 신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나라에서 그를 대표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예수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겼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께는 외국이 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이방 나라인 지구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왕의 명을 좇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곧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Now there is quite a bit of Old Testament root in the idea of God our salvation. David mentions it in the psalms. Moses mentions it in Deuteronomy. Mary in the magnificat, “My soul that magnify the Lord, my spirit doth rejoice in God our Saviour” (Luke 1:46–47). And so here is the first time that Paul uses the phrase or the term, “God our Saviour.”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에 근원을 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구원을 언급했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언급했습니다. 마리아의 송가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눅 1:46-47).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장 1 절 상 반절 말씀,

hope. and Lord Jesus Christ, our hope (1:1);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God our Saviour, Jesus Christ, our hope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Unto Timothy, my own son in the faith: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Jesus Christ our Lord (1: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찌어다 (1:2).

Timothy lived in Lystra, a city that Paul visited i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It is thought that Paul perhaps stayed in the house of Timothy o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He knew his mother and grandmother. He knew how they had instructed Timothy in the word. He mentions Eunice and Lois. Timothy was just a very young boy in Paul's first journey to Lystra, but evidently at that time made a commitment of his life to Jesus Christ and always held Paul as sort of a hero. Fascinated by this man, he looked up to him.

디모데는 바울이 일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도시인 루스드라에 살았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일차 선교 여행 때, 아마도 디모데의 집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니스와 로이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일차 선교 여행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으며 바울은 항상 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매혹 되었고 바울은 그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On Paul's second missionary journey, though Timothy was still very young, probably in his mid-teens, he at this time became a companion of Paul and journeyed with him in his missionary endeavors. And so he is listed in many of Paul's writings. He was sent by Paul to Thessalonica to discover the welfare of the church. He had visited many of these churches with Paul, was familiar with the people; Paul sent him to Philippi with a letter to the Philippians and he said that he had no one who was like-minded as he was as Timothy. I mean, Timothy was just joined with Paul in heart and in spirit, in calling, in vision.

바울의 제 이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는 아직도 나이 어린 소년으로, 10대 중반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으며, 선교여행에 동반자가 되어 그의 사역을 위해 그와 함께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 데살로니가교 파송을 받아 교회들을 돌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바울과 함께 수많은 교회를 방문했으며 많은 교인들과도 친근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주어 빌립보 지방에 보냈을 때,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만큼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되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했으며,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And so now Paul is writing to him and he addresses him as his son in the faith. "My own son in the faith." And so there was this special relationship that existed between Paul and Timothy, like that of a father and son. And I believe that Paul saw in Timothy a tremendous

potential for one to carry on the ministry once Paul was taken, and so he poured his life into Timothy; he disciplined Timothy. And this is one of the two letters that he wrote to Timothy of instruction, as a father to his son. So, “Unto Timothy, my own son in the faith: Grace, mercy, and peace.”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마치 친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믿기엔 바울이 그가 떠난 후에라도 디모데가 그 사역을 이끌어갈 큰 잠재력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에게 쏟아 부어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쓴 두개의 편지 중 하나의 서두인데,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하노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찌어다’ (1:2).

Now in most of Paul’s epistles, he says, “Grace and peace.” Two epistles he adds “mercy”, this one to Timothy and also his epistle to Titus, there is the addition of “merc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race and mercy; mercy is not getting what’s coming to us. God is merciful. The Bible says, “As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so high is God’s mercy towards those that fear him” (Psalm 103:11). God is very merciful. And though we deserve the judgment of God, God is merciful.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 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서신에서는 ‘긍휼’을 덧붙여 놓았는데 그러한 표현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긍휼이란, 우리가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지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이시지요.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 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 103:11).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게 하실만큼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And though I have no, I have no argument that Hollywood and that area of Los Angeles doesn’t deserve the judgment, I believe it does deserve the judgment of God, but God is merciful. I think that God would be totally just in wiping out San Francisco, Hollywood, and a lot of these areas, but God is merciful. We don’t get what we deserve. And of course, if I got what I deserved, God would wipe me out, too. So who am I to talk about San Francisco or Hollywood? God is merciful. He does not reward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나는 할리우드나 로스엔젤레스 같은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샌프란시스코 나 할리우드 같은 큰 도시들을 아주 짝 쏘아 버리신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기엔 너무나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뤄야 할 댓가를 공제 받은것입니다. 물론 내가 만일 당연히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없애 버리시겠지요. 샌프란시스코나 할리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부정한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Grace is a positive characteristic of God. Mercy is sort of a negative characteristic, in that you don’t get what’s coming to you. Grace is a positive characteristic; that is, getting what you

don't deserve. I don't deserve all of the goodness of God. I don't deserve all of the blessings of God. I don't deserve all that God has done for me. But that's grace, God doing for me what I don't deserve; what I couldn't earn. What I don't and haven't merited. God just pouring out upon me the richness of His love and His goodness and His blessings; that's grace, and realizing that grace of God towards me, my spirit rests. And thus, I have the peace. So "Grace, mercy, and peace".

은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특성입니다. 공훈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댓가를 받지 않게 하는, 좀 부정적인 면이라고 본다면,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모든 축복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루워 놓으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자격이 없고 내가 벌어 드릴수도 없고 장점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사랑의 부요 함과 선하심과 그의 축복을 그저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영혼이 쉬임을 얻게 하신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리므로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공훈과 평강" 이라고 한것입니다.

As I besought thee to abide still at Ephesus, when I went into Macedonia, that you might charge some that they teach no other doctrine (1: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3)

So Paul was called of God to come over to Macedonia. Timothy was with him but Paul felt a necessity to send him back to Ephesus to instruct the church there, and though he was a young man, Paul encouraged him, "Don't let anybody despise your youth; be an example unto the believer" (I Timothy 4:12). And so I sent you back to Ephesus that you might charge those that they not teach any other doctrine,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때 바울과 동행했지만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그저 젊은 청년에 불과했지만, 바울은 그를 격려하면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고 하였습니다 (딤후 4:12). 그리고 '내가 너를 에베소에 보내니 너는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권면하도록 하라' 고 하였습니다.

Neither give heed to fables and endless genealogies, which only create questions, rather than godly edifying which is in faith. Now the end of the commandment Or the effect, the sum total of the commandments of God, is love out of a pure heart (1:4-5)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1:4-5)

Or the effect, the sum total of the commandments of God,

is love out of a pure heart (1:5),

결과,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요약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1:5),

A lawyer one day asked Jesus,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He sai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soul, mind, strength” (Matthew 22:37). So that’s what Paul is saying. Really the summation of the commandments is loving out of a pure heart. That’s what it’s all about. If I’m really following the commandments, that will be the effect, this loving out of a pure heart. How God does want us to just have this deep love for one another. That’s what, that’s the, if you want to sum up all of the commandments, it’s summed up in that; loving, loving God and loving one another. That’s what it’s all about. That’s what God desires of us. Loving with a pure heart, or a true faith, a good conscience, love.

어느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2:37)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계명을 요약하면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계명을 따른다면 그 결과는 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계명을 요약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것입니다. 5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a good conscience, and faith unfeigned (1:5):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1:5);

What great characteristics to possess; loving from a pure heart, just a good conscience. Paul said I have a conscience void of offence towards God. And then faith that is true, unfeigned. Now some have turned away from this, Paul said.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는것, 이 두가지를 소유하는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것 인지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양심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서 벗어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6 절과 7 절 말씀을 봅니다.

And they’ve turned aside to vain jangling; Desiring to be teachers of the law;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aying, nor the things that they affirm (1:6-7).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1:6-7).

Now Paul is warning against endless genealogies, questions that only create confusion or disputes. There’s --there are honest questions and there are dishonest questions. There are some people who ask questions only because they want an argument; they don’t want to know the truth. They have a position that they want to espouse, so they want to get you embroiled in an argument. And so they will ask a question, not really seeking an answer but seeking an argument. They want you to state your position so that they can then begin to attack your position; that I call a dishonest question. An honest question is the man who asks, desiring to know the answer. Now I personally do not have any time for dishonest questions. And I’ll tell you, I got the gift of discernment when it comes to questions.

바울은 끝없는 족보와 혼란과 논쟁을 일으키는 질문들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솔직한 질문과 솔직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논쟁을 벌이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이 옳다고 여기므로 우리로 하여금 논쟁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질문은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주장하는 바를 말하게 하여 여러분을 공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솔직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솔직한 질문이란, 묻는 이가 그 답을 절실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솔직하지 않은 질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질문을 했을때, 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것입니다.

Of course, I know that certain groups have certain questions. And when someone comes up and they have the stock questions that they ask, I know exactly where they're coming from. And sometimes I treat them rather abruptly and people standing around said, "Oh, that poor brother wanted to know." I said he didn't want to know anything; he wanted to argue. I don't want to argue scripture. I don't think that anything is gained from arguing scripture, trading verses.

물론, 나는 그룹 마다 특이한 질문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이 묻고 싶은 주식(stock) 에 관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질문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무뚝뚝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이 "오, 그 가련한 친구가 알고 싶어 하던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시비 걸려고 한다고 말해줍니다. 거래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언쟁을 해보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And so Paul is saying avoid these things. Tell the people to avoid these fables, endless genealogies, questions that are designed. That isn't why --that isn't where it's at. Our purpose should be to build up one another, not to cut at one another, tear down one another, challenge one another; but the true purpose is to build up one another. And these people, he said, they desire to be teachers and they speak with great authority, but the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 lot of times when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t's important that you speak with authority.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화나 끝없는 족보나 다툼을 위해 만들어진 질문들을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것이 왜 있어야할 곳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서로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일이며, 깎아 내리거나 도전하는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선생이 되려 하거나, 또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려는 사람들은 실상 자신들이 무얼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면, 우리도 권위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I read of a minister who had his sermon all outlined, but then he had little notes of gestures that should be used at particular points in the sermon. And so at this particular point it says, Extend your arm outward, opening up your palm, you know, to the people, and so these vivid-type gestures. And he had all of his notes all the way down, how he was to gesture, where he was to look, when he was to smile and so forth, and the whole thing was all programmed out for him. Well, they do that. But down on the page it said, At this point yell like everything, because it's a weak point. And sometimes, you know, when our point is weak we got to yell it; we got to speak with authority.

내가 어떤 목회자의 설교 요약본을 본적이 있는데, 그의 원고에 설교중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몸짓을 해야 할지 표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라, 사람들에게 손바닥을 펼쳐서 생생한 표현을 하고, 그가 어디를 볼 것이며 미소를 짓는것 등등의 모든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면의 제일 밑에는 이 시점에서 소리를 질러야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약점이기 때문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요지가 빈약하면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좀 권위있게 강조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But he said they really desire to be teachers but the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they don't know the things that they are affirming to be so. These people were again trying to bring the people back under the law. And so Paul said,

그러나 바울은 누차 말하기를 그들은 그저 선생이 되려고는 하나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We know that the law is good, if a man use it lawfully (1:8);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 인줄 우리는 아노라 (1:8);

8 절 말씀이지요.

Don't have any argument with the law. But then Paul comes in and he said, 율법을 가지고는 어떤 논쟁도 하지 마십시오. 9 절 말씀은 말하기를,

But we know this, the law was not made for a righteous man (1:9)
알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1:9)

An interesting point. You see, a righteous man does not need any law. A man who lives by good principles doesn't need laws; you don't have to tell that man what he should do and shouldn't do. He does them because he is a righteous man; he is a principled man. The law is for unprincipled people, and there are a lot of those in the world. And thus we need laws to keep them in check.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며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기에 그것들을 지킵니다. 법이란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저지시킬 만한 법이 우리에게겐 필요한 것입니다.

In Romans, Paul said the law is not a terror to a good person. It's only a terror to the evil person (Romans 13:3). You shouldn't be terrified when you see a policeman unless you're a bank robber or something. You see, if you're guilty of violating the law, then the law becomes something that you're frightened of, something that you dislike. But if you're an honest, upright principled citizen, you appreciate the law. You appreciate those who are enforcing the law because they're making it possible for you to live in this area. And if it weren't for the law and

those who are enforcing the law, we would be living in an intolerable condition because there are those out there who need that kind of a bridle.

로마서에 보면, 선한 사람들에게겐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자들에게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롬 13:3). 여러분이 만약 은행강도나, 혹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경찰관을 볼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법을 어겨서 죄가 있다면, 그 법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걸 싫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원칙을 따른다면, 오히려 법을 고맙게 여길것입니다.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까지도 고맙게 생각할 것임은, 그들이 이 지역에서 여러분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법이나 또 법 집행자가 없다면, 세상에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고로,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So you want to be taught the law, you want the law. Paul says, All this, I'll tell you who the law is for; it's not for righteous people. They don't need to be taught the law. They don't need to be put under the law.

그래서 여러분은 법이 필요로 하고 또 그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말하겠습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 아래 들어갈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9 절과 10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but [the law is] for the lawless, the disobedient, the ungodly, the sinner, for unholy and profane people, for murderers of fathers and murderers of mothers, for manslayers, for whoremongers, for them that defile themselves with mankind [or for the homosexuals], for the menstealers, for liars, for perjured persons, and if there be anything that is contrary to sound doctrine (1:9-10);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 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1:9-10)

Those are the people who the law is for. So you want us to teach the law. Well, what problem do you have, brother? You see, the law isn't for righteous people. We don't have to be rehearsing the law if we live by righteous principles.

법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에게 법을 가르친다구. 형제여, 도대체 뭐가 문제요?” 다시 말하지만 법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원칙에 따라 산다면 구태여 법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According to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which was committed to my trust (1:11).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1:11).

Now Paul says rather than teaching and preaching the law, we are teaching and preaching the glorious gospel, the good news of God. The law is bad news for the people to whom it was sent because it is a restricting thing, a condemning thing; the lawless. But rather than preaching the law, we preach the “glorious good news, the gospel of the blessed God,” which, Paul said, “was committed to my trust.”

이제 바울은, 우리가 법을 가르치고 전파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영광된 복음, 즉,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고 불법자를 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 전파 하는것 보다는, 영광스럽고도 좋은 소식인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바울이 말한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12 절을 봅시다

And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enabled me, and counted me faithful, putting me in the ministry (1: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이니 (1:12);

Now Paul says of the ministry that he was enabled by the Lord. God isn't really looking for ability, though so often when we are looking for someone to fill a position within the church or whatever, we get out the resumes and we look for the graduated Magna cum Laude and we're looking for the most talented individual. God doesn't. God looks for the most available individual and then He enables him to do the work that He would have done. And quite often, the choices of God are shocking to us. You know, it's sort of an interesting thing; he says God counted him faithful, put him in the ministry. And of course, a steward is required that he be faithful. So God's looking for someone who's available, someone who'd be faithful.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사역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빈번히 교회안에서 어떤 위치나 무엇이든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이력서를 보고 우등생으로 졸업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찾지만 하나님은 능력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용하실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놓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는 아주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사역을 맡기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 들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용한 일꾼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Years ago when we started Calvary Chapel, just eighteen and a-half years ago, from the very beginning it seems that God began to bless this group of people that had gathered together. It was definitely something that was ordained of God and born of the Spirit and born of prayer, and we began to have just an immediate move of God and God began to add people almost immediately. Of course, we started with about twenty-five the first Sunday. And before long we were running fifty. And within a year or so, we were running a hundred. And there were a lot of

other small churches in Costa Mesa at that time, and they began to observe what God was doing at Calvary Chapel. And some of the ministers at that time publicly said to their congregations, "If God can do it for Chuck Smith He can do it for us." I liked that. I understood why it is that God chose me to encourage others. For if God can do it for me, He can do it for anybody. And He used that to encourage a lot of the pastors at that time.

수년 전, 그러니까 약 19년 전에, 우리가 갈보리 채플을 시작할 때 부터 모였던 이 그룹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고 성령과 기도의 결과로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나타났고 하나님이 즉시 사람들을 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번째 주일 예배는 약 25명으로 시작했지만 오래지 않아 50명이 되었고 일년 안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코스타 메사에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갈보리 채플에서 하시는 일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길 “하나님이 척 스미스 목사에게 역사하셨다면, 우리에게 왜 못하시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가능 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써 그 당시 하나님은 많은 교회의 목사들을 격려하셨습니다.

So Paul the apostle said that the Lord enabled me. He counted me faithful, He put me in the ministry. I'm thankful for this. He committed to my trust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He said,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성된 자로 여겨 주셔서 그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은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 입니다. (13 절을 보겠습니다.)

For before I was a blasphemer I was a persecutor I was injurious (1: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이었으나 (1:13)

That he was; that is, he was a blasphemer against the church and against Jesus Christ. He stood by while Stephen was stoned, consenting to Stephen's death, encouraging those that were throwing the stones by holding their coats. And then he went down to Damascus from Jerusalem with letters authorizing him to imprison those who were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on his way to Damascus, as he was breathing out murders and threats against the church is when the Lord got hold of his life. But "before I was a blasphemer, I was a persecutor."

바울은 이전에 예수그리스와 그의 몸 된 교회를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이려고 자신들의 겉옷에 돌을 담아와 그에게 던질 때 그를 죽이는 일에 뜻을 같이했던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격려했으며, 마침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동안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여 헐박하고 죽일 생각에 거친 숨을 몰아 쉬며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바, 그는 분명, 훼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13 절 후반절과 14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But I obtained mercy, because I did it ignorantly in unbelief. And the grace of our Lord was exceeding abundant with faith and love which is in Christ Jesus (1:13-14).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 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 하였도다 (1:13-14).

So Paul talks about his own ministry, his call into the ministry. An unlikely a candidate as you could ever hope to find. In fact, I thought that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if Paul the apostle were to have a resume written of him and sent to some of the churches that are seeking new pastors. I'm sure that the pulpit committee in reading his resume would say, "Hey, don't even bother finishing. We don't want that fellow." I've been thrown in prison several times. I've been beaten. I've been stoned. I've created riots. I have poor eyesight. I'm not much of a speaker. And yet God enabled him, called him, used him. Paul speaks of having received mercy. But then also, he received the grace of our Lord, exceeding abundant grace. Oh how glorious!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부르신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새 목사들을 구하는 어떤 교회에, 그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했더라면, 그것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청빈위원회에서 그의 이력서를 받아 읽어 본다면, “여보게, 읽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런 친구를 원치 않아” 라고 말했을겁니다. 그의 이력서에 그는 “나는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사람들에게 매도 맞았으며, 돌로 맞고, 난동을 일으켰으며, 내 눈은 어둡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지극히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5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worthy of a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chief.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15)

Now he talked about the glorious gospel that was entrusted to him and this is the gospel. This is the faithful saying, It's a true saying. It's worthy that every man should accept it. What is that true and faithful saying that everyone should accept? This: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은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 들여야만 하는 참된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That's the gospel. That's the good news.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First of all, all men are sinners. Therefore, He came to save all men.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Because all men are sinners, all then were dead in their trespasses and sins.

그것은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롬 3:23).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Paul, in writing to the church in Ephesus said, “And you who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where in times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at even now is working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among whom you all of you one time lived” (Ephesians 2:1-3). No exception; we were all sinners. We were all alienated from God as the result of our sin. Our lives were wasted, useless, lost. The glorious Gospel: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Jesus said I’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And so this glorious Gospel entrusted to Paul is just so simpl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에베소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1-3).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 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것 이었으며 길을 잃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10). 바울에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너무나 바르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Jesus said to Nicodemus, “I did not come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me might be saved. And he who believes in me is not condemned: but he who doesn’t believe in m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n’t believed i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the men will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ir deeds are evil and the light makes manifest” (John 3:17-19).

예수께서 니고데모 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한복음 3:17-19).

Jesus does not stand as your accuser. He stands there as your Savior. Jesus did not make accusations against the sinner. He only gave invitations, “Come unto me,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28). If you’re a sinner, you don’t need to fear Jesus. He’s reaching out His arms to you. He’s saying to you, Come unto me, I will give you peace.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hope. I will give you life. I came to save you.

예수님은 여러분을 참소하는 고소인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는 죄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8). 만일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결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주리라. 나는 너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You see, so many times we see Jesus in the opposite posture. We see Him there condemning us, pointing the finger. Oh, I don’t want to be around Him. I feel so guilty, you know. I’ve done so many awful things, you know, and I see Jesus as a Judge and as One condemning me; but not so. He said, I didn’t come to condemn.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이 저희랑 반대적인 입장에 서 계시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를 비난하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손가락질도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사실. 저는 그 분 가까이에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하게 저를 괴롭히거든요.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나쁜 짓을 아주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를 정죄하는 엄한 재판장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oman taken in the very act of adultery brought to Jesus; and they said, "Our law says we're to stone her. What do You say?" Jesus said, "Well, I say whoever among you hasn't committed a sin, let him throw the first stone." Then as He wrote on the ground, and I am certain, though the Bible doesn't say it, He began to wri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there on the dirt, I believe He began to write and enumerate the sins that these people were guilty of. Probably putting their name. Levi, you know, I'd start writing out his sin. And Levi says, Oh, I think I better go, my wife's you know expecting me home. And so one by one He wrote their names, began to write their sins. And one by one they began to leave from the oldest to the youngest until there was nobody left. And Jesus stood up and He looked up at the woman, He said, "What happened to your accusers?" And she said, "Well, Lord, I guess I don't have any." He said, "I don't condemn you, either. Go your way, sin no more" (John 8:2-11).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우리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면 좋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글에 관하여는 성경상에서 알려 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소견에는 사람들이 범한 죄를 하나 둘 열거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름까지도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레위. 너, 잘 봐라 내가 이제 네 죄를 써 내려 갈 거다” 그럼 레위는 생각하기를 “아이쿠, 빨리 가는 게 낫겠구나. 저 먼저 실레하겠습니다. 오늘 제 집사람이 빨리 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한 사람씩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죄를 계속 써 내려 갑니다. 그러자, 늙은 이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 슬그머니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물으셨죠.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2-11).

Oh what good news.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not to condemn them. We didn't need that; we were already condemned. What we did need was a Savior. When I am in need, when I am down, when I am out, I don't need someone to come and tell me how horrible a person I am and how awful I am. I need someone that will take me by the hand and lift me out, someone that will help me. And that's exactly what --Jesus doesn't come along to chastise you and to castigate you for all the evil that you've done; he's come along to take you by the hand and lift you. This is the Gospel. This is the good news.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nd Paul added,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들을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를 당했으니 또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구세주입니다. 때로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혹은 낙심하거나 낙오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지독한 사람인지 내게 확인시켜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손을 잡고 나를 도와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악함을 징계하거나 징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바울이 덧붙여 말합니다.

of whom I am chief (1:15).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Now I'm certain that he could get an argument on that point. But again, Paul did have a lot of indictments against him, as far as Jesus Christ was concerned. For he was a blasphemer of Jesus Christ, he was a persecutor of the church, he had injured many who ha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But he said,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는 그 자신을 기소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던 자였고 교회를 핍박했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Howbeit for this cause I obtained mercy, that in me first Jesus Christ might show forth all longsuffering, for a pattern to them which should hereafter believe on him to everlasting life (1:16).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이니라 (1:16).

In other words, the Lord chose the most unlikely candidate and saved him. I mean, if you were living in those days and you saw this young, zealous Paul. And you saw how he hated the church and hated Christianity, hated all of the Christians. And if you heard him, as he would

blaspheme the Christians and just, you know, he was just so filled with venom and all against Christianity and those that were calling on the name of Jesus. You'd say, man, that is the last person in the world that will ever be saved. I mean, there's no hope for that guy, you know. And so Paul says, God chose me to show how longsuffering and merciful He is in order that anybody else after me might be encouraged. Hey, God is willing to reach to the lowest. Jesus Christ will forgive the worst and it should be an encouragement. God set the pattern by reaching down to the bottom and lifting me out and making me His representative, His apostle, His ambassador.”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젊고 유능한, 열성적인 바울을 보셨을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미워했고 또 그리스도 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겠지요.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훼방한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가 서슬이 퍼래진 모습으로 기독교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금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구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누구든지, 내 뒤에 올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오래 참으셨으며 얼마나 긍휼이 여기셨는가를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 주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자에게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악한자라도 기꺼이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밀바닥까지 낮추시며 모범을 보이셨고, 또 나를 들어 올리사 그의 사도로 그의 대사로, 또 그의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

So Paul marveled, constantly marveled that God should call him to minister the truth of Jesus Christ, after how he had attempted to destroy this very truth that he was now proclaiming.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를 얼마전까지 악착같이 거스리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Now unto the King eternal (1:17),

만세의 왕께 (1:17),

Now Paul when he's thinking about this he's just carried off into ecstasy and so he has to throw in this little benediction. Paul does this every once in a while, he just gets so excited he has just to throw in a little bit of praise-kind-of-a-thing, you know. And I love it. I --it happens to me. I get so excited with the goodness of God and the grace of God and the blessing of God, I just every once in a while, I have to throw in a little, "Oh, praise God," you know and little benediction-kind-of-a-thing. So,

바울이 깊은 예배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감동에 이끌릴 때면, 어느덧 찬미의 기도가 그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일은 내게도 종종 생기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한없는 축복을 생각하다보면 흥분에 겨워 찬미의 말이 저절로 나의 입술에서 흘러 나오게 되지요.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un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o the only wise God, be glory and honor for ever and ever. Amen (1:17).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1:17).

So beautiful, little benediction here.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wise God, be honour and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We are told to give glory unto God. Glory and honour and power ascribe unto our God.

정말 간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축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This charge [Paul said] I commit unto thee, son Timothy, according to the prophecies which went before on thee, that you by them might war a good warfare; holding faith, and a good conscience; which some having put away concerning faith have made shipwreck: Of whom is Hymenaeus and Alexander; whom I have delivered unto Satan, that they may learn not to blaspheme (1:18–20).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 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과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So now Paul is charging Timothy and charging him “according to the prophecies, which went before on thee.” Now, many times it would seem in the early church they were directed in their ministry by prophecies, by the word of prophecy.

이제 바울도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행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 교회들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예언의 말씀들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In the book of Acts chapter thirteen, “Now the Holy Spirit said, Separate unto me Paul and Barnabas for the ministry wherein I have called them. And so they fasted and prayed, laid hands on them, and the Spirit sent them forth” (Acts 13:2–3). But how did the Spirit speak saying, “Separate unto me Paul and Barnabas?” Here they were gathered together praying, no doubt talking about the need of getting the Gospel into the world that had not heard, and the Spirit said, “Separate to me Paul and Barnabas for the ministry wherein I’ve called them.” How did He say

that? I believe that it was spoken through the word of prophecy. Someone in the group was anointed by the Spirit and prophetically declared this. And thus the Holy Spirit through prophecy said, "Separate unto me Paul and Barnabas". And the gift of prophecy was used this way in the early church.

사도행전 13 장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사도행전 13:2-3).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세우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들은 말씀을 들어 본적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믿기에 그것은 아마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 중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기록하신 성령께서 예언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있어 중요하게 쓰여졌습니다.

When Paul was in Caesarea on his way back to Jerusalem, staying at the house of Philip; Agabus, a certain prophet in the church of Jerusalem came down and took Paul's girdle and tied himself up with it. And said, "So is the person who owns this girdle to be tied when he gets to Jerusalem" (Acts 21:11). He prophesied of what was going to take place when Paul got to Jerusalem. They were directed.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가이사랴지방에 있던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1:11).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And so Paul in another place in writing to Timothy said, “Now stir up the gifts that are in you, that were given unto you by the laying on of hands and by prophecy” (I Timothy 4:14). So oftentimes when they would lay hands upon people and pray for them, there would be prophecies that would come forth, in which the Lord would often show the person the direction of their ministry.

이제 바울은 다른 장소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불러 일으켜라”(디모데 전서 4:14). 당시에, 그들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면, 종종 위로부터 임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 주시곤 했습니다.

Now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limited to the New Testament. As I said, I have not seen a vision or had a dream that I felt was spiritually significant. I have had prophecies that were directed to me concerning my ministry when hands were laid upon me and we were in prayer together. And this is a practice of the early church, and it is something that is valid today.

사실 이런 일은 신약성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말했듯이, 내가 어떤 영적인 암시가 있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이 임함으로 나의 사역에 관계된 특별한 지시를 전해받곤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것이지만 분명히 오늘날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Years ago when I came to a very discouraging point in my ministry, having been in the ministry for almost seventeen years, not really seeing any effective results, discouraged really to the point of leaving the ministry because of the ineffectiveness of my ministry; we were in prayer together and a group of friends waiting upon the Lord. We put a chair out in the middle and we began to pray for people. And finally I sat in the chair and they prayed for me, and prophecy, the word of prophecy came. And God began to tell of the ministry that He was going to give to me and of the way that the church would be blessed and the way the church would grow. It seemed at that time like it was so totally unlikely. That time the Lord actually said that He was going to give me a new name, which meant “shepherd”, because He was going to make me the shepherd of many flock.

수년 전,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한지 약 17년 정도 되던 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바람직한 결과는 커녕 아무런 열매가 없는 터라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지 어쩔지 고민해야 할 만큼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한 그룹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지요. 우리는 가운데에 의자 하나를 놓고 차례로 한 사람씩 앉게 한 다음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있지 않아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그가 내게 맡기시고자 하는 사역과 교회에 임할 축복,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리라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길, “내게 새 이름을 주겠다”하셨는데, 그 이름은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은 양 무리의 목자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Before I came down here, a group of people were in prayer, as to whether or not I should come down. They had asked me to come down and to take over here at Calvary Chapel and they were in prayer in regards to it. And the Lord spoke to them through prophecy and said that I was going to be coming down, that the Lord was going to bless the church abundantly. That we were going to --the church would be outgrowing that facility. We would be moving to a new facility on the bluff overlooking the bay, and that God would continue to bless until the church would be known around the world. There would be a national radio ministry, and God laid out so many things that have since come to pass through the word of prophecy.

여기 오기 전에도, 한 기도 모임에서 나는, 내가 여기 와야 할지 혹은 다른 뜻이 있는지에 관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여기 와서 갈보리 채플을 맡아 주기를 청했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사 예언하게 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오게 되리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넘치게 축복하실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해 가기 시작하였는데 장소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그마한 곳의 새로운 시설로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방송 선교를 위한 라디오 방송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 말씀 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많은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So Paul is talking to Timothy about that experience he had, when hands were laid upon him by the presbytery, and the word of prophecy was given. And gifts were given unto Timothy, and the calling of God upon his life for the ministry that he was to fulfill. So I “charge and commit unto you, son Timothy, according to the prophecies that went before on thee.” Remember those prophecies that were given. “That you by them might war a good warfare.” Hang in there, Timothy. “Holding the faith, and a good conscience; now some have put away the faith and they’ve become shipwrecked.” And a couple of them he names, “Hymenaeus and Alexander;” and he said, “I’ve turned them over to Satan, that they may learn not to blaspheme.”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부여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은사를 받은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 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예언으로 명한것을 기억하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며 그리고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또 계속 말하기를, “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Now just what he means by that, I don’t know, except Satan does desire to destroy us. And you remember when the sons of God were presenting themselves to God and Satan also came with them, and God said to Satan, Hey, where have you been? And he said, Oh, I’ve been going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up and down in it. And God said, Well,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Good man. And he said, Oh yeah, but you’ve put a hedge around that guy. I can’t get to him. So in turning them over to Satan, it could be that they are no longer protected by the hedge that God puts around his children. And I’ll tell you, if you’re not protected by God against Satan, you’re just an open mark and I, I really --my heart goes out to you.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사단이야말로 우리를 파괴 하려는 자임을 알게 하려는 뜻입니다. 다 같이 욱기 1 장 말씀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또한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어디에 있다 왔느냐? “ 하시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 네가 내 종 욱을 잘 눈여겨 보았느냐? 착한 사람이지” 라고 말씀하시니, 사단은“오,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집과 소유물을 산울로 다 둘러 지켜 주시니 그렇지요. 그러니 내가 무슨 수로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면 하나님이 두르신 산울에 의해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치 사단의 눈 앞에 그의 먹이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I thank God for that protection that He places around us, His children. That hedge. And perhaps Paul just said, Lord, take away the hedge. They want to dabble with it, let them get burned so that they’ll learn not to dabble.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가 그의 자녀 된 우리를 둘러 감싸시며 보호해 주심을 인함입니다. 산울타리로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산 울을 그냥 거둬 주세요. 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 안에서 저렇게 훼방을 놓고 장난을 치는데, 그러면 혼이 난다는 걸 좀 가르쳐 주게 따끔한 맛을 좀 보여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Chapter 2

Now I exhort [Paul said] therefore, that, first of all, supplications, prayers, intercessions, and the giving of thanks, be made for all men For kings, and for those that are in authority; that we may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in all godliness and honesty (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2:1,2).

So we are exhorted to pray for each other, to intercede. “Supplications, intercessions, the giving of thanks.” And then,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hat we pray for our leaders in government. I believe that we should be holding our president up in prayer. What an awesome responsibility that man has. I personally cannot understand why anybody would want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mean, that has to be one thankless job. He needs prayer. We need to pray for those who si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e need to pray for the congressmen, the senators national, statewide.

우리는 서로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감사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또 나는 우리가 기도으로써 우리의 대통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실 난 개인적으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보좌하는 관계 부처 장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상원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모든 주지사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Now the purpose of the prayers is that we might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in all godliness and honesty. The real purpose of government is not to tax people. The real purpose of government is to preserve the good. That’s the purpose of government, the preservation of good. And all laws should be designed for the preservation of good because there are these evil influences and powers and government is actually ordain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good. Keeping out the evil. And when a government no longer is fulfilling that function, the evil that they allow will ultimately destroy that government.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목적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평안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이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며 이야 말로 정부가 세워진 참된 목적인 것이지요. 정부가 선한것을 보존하기위해 세워진 것이므로 모든 법률은 선을 보존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영향과 악한 세력을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부가 악을 막는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정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Study your history books and you will see it is tru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Most governments began with the high ideal of the preservation of good, but in time, the corrupt forces moved in. The laws were liberalized to where good was no longer being preserved but evil was being allowed, being tolerated and then being protected by the laws. And the next thing was that the evil then overthrew the government.

여러분이 역사책들을 공부해 보면 그 모든 과정 과정들이 거듭해서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선을 보존하고자 하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패한 세력이 침투해 들어간 것이지요. 법률들은 자유화되었고 선은 더 이상 법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도록 되는가 하면, 악은 허용되고 묵인되며 오히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악한 세력이 정부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We are at that stage her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vil is now being protected. It is being mandated by law; protection of the evil being mandated by our laws. And the next state is the fall of that government. So we need to pray. Pray for the kings, those that are ruling over us.

이제 미국은 악이 보호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보호하는것이 우리의 법들로 인해 제정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이 정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For this is good and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ur;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2:3-4).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 (2:3-4).

What an opposite picture many people have of God who looks at Him as One who wants to damn everybody. In fact, they go around asking Him to. And so people get in their minds and associate in their minds God judging and condemning everyone. How opposite that is to the truth of God's nature, who would have everyone to be saved.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길, 그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발 그들좀 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분으로만 연상하지만 그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Listen to God crying unto the people through Ezekiel the prophet as he said, "Turn now, turn now, for why will ye die, saith the Lord. Behold, I hav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Ezekiel 33:11).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11).

Peter said God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2 Peter 3:9).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 (벧후 3:9).

Here Paul tells us that God desires that all men be saved; the God of salvation who desires that all men should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what is the truth?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2:5);

하나님은 한 분 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5); 2 장 5 절 말씀입니다

When Job was having all of his afflictions: He lost his possessions. He lost his children. He lost his health, lying in the misery covered with boils, lying in the ashes; his wife looking at him in this miserable state said, Honey, why don't you just curse God and die? Get it over with. I can't stand to see you suffer like this anymore.

욥이 모든 재앙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잃었고, 그의 자녀들을 잃었으며,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재 가운데 누워 있을 때, 그가 가혹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본 그의 아내는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끝장내세요. 당신이 이렇게 고통 당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His friends came to comfort him, but rather than being a comfort, they became accusers, condemners. One of his friends, Eliphaz, said, Why don't you just get right with God and everything will be okay? He said, Thanks a lot, Pal. What do you mean; get right with God? Who am I that I could stand before God and justify my case? He said, I go out, I look up at the stars and I realize how vast and great God is. And here am I, just a really nothing here on this planet. God is so great and I am so small. I try to find Him, I look here, I look there; I look around. I know He's around here but I don't see Him. And how can I stand before God to declare my innocence or to justify my case? With God so vast and I so nothing, there is no daysman between us who can lay his hand on us both.

그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 왔지만, 위로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은 욥을 고소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아닌가?’ 하며 은근히 욥을 책망하자 욥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대단히 고맙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경우를 정당화 한단 말인가? 내가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 보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위대하시며 나는 정말 이구상에 있는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 하나님은 거대하시고 나는 지극히 작으며 내가 그분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여기도 저기도 찾아보고 온 사방을 둘러 보아도 그분을 뵈 수가 없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무죄를 주장하며 나를 정당화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방대하시고 나는 지극히 작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손을 잡아줄 중개자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찾을 수가 없구나.

Job saw the problem of man trying to communicate with God or trying to touch God. It's the trying to bridge over the great gulf between infinity and the finite. The only way Job can see it happening is that there be a daysman between who can touch us both. And in answer to the cry of Job, Paul said,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Through Jesus Christ, the cry of Job is answered. He is the daysman who can touch God, and can touch man. For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n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And he became flesh and he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One Go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웁은 인간이 하나님과 의사소통 하려고 하거나 그에게 접촉하려고 할때 생기는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그가 생각한 단 한가지 가능성은 하나님과 웁 사이를 연결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사이의 커다란 해협을 연결해 주는 다리를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접촉하실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14). 그분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중보 하시는 유일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Now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if you want to come to God, don't come to me. I'm not a mediator between God and you. If you want to come to God, you must go to Jesus Christ. He alone is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You can't go to another man. You can't go to the saints. You can't go to Mary. There is only one mediator, the man Christ Jesus. And He is the only One that can bring you in touch with God.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A very radical, exclusive claim, "One God, one mediator, the man Christ Jesus." But thank God, there is a mediator.

이 말씀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분만이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됩니다. 어떤 성자에게나 마리아에게도 가선 안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이십니다. 그 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접촉할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느니라"(요 14:6) 라고 말합니다."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아주 극단적이며, 배타적인 주장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중보자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Oh how thankful I am I can come to God. Jesus stands there and puts His hand upon God but He also reaches down and puts His hand upon me, and He brings me in touch with God. I touch God through Him. For he was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and yet he came in the likeness of man that he might touch me. And so God touched man through Jesus and in turn, man can touch God through Jesus; "One God, one mediator".

내가 하나님께 나아 올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의 한 손을 하나님께, 또 다른 한 손은 나에게 닿도록 뻗치시고, 나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나는 그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와 접촉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교통하실 수 있듯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중보자도 한분이십니다.

Who gave himself a ransom for all, to be testified in due time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2:6)

You see, we were all sinners. And as a sinner, I was totally unable to redeem myself. Nothing I could do to save myself. Nothing I could do to make myself righteous. There is nothing that I could do that could atone for my past guilt.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할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의롭게 되기위해 할수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ow you might say that there are high sinners and there are low sinners. There are good sinners and there are bad sinners, but you're all sinners. And really, it doesn't matter if you're a good sinner or a bad sinner. None of us can redeem ourselves. But Jesus gave himself as the ransom; He died for us and in our place.

그럼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질이 아주 높은 사람과 죄질이 좀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좀 나은 범죄자와 아주 나쁜 범죄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좀 선한 사람이던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던 상관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Whereunto [Paul said] I am ordained a preacher, and an apostle, (and I am telling you the truth in Christ, I wouldn't lie to you;) I am a teacher of the Gentiles in faith and in truth (2: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2:7).

It is to proclaim this testimony of Jesus Christ that I've been called as an apostle, as a preacher. And I'm speaking the truth. I'm a teacher of these things.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며 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다음은, 2 장 8 절 말씀.

I will therefore that men pray every where,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2:8)

Now this is one posture in prayer, lifting up your hands in prayer. And there are times when I pray I lift up my hands unto God. I do that more when I am praising the Lord than I do when I am making requests. Some people find it difficult to lift their hands unto the Lord and if you do, there's no problem. God understands that you've got a hang up and He'll listen to you just as much.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position of the body in prayer. Which position is most effective?

기도 중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기도의 한 자세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무엇을 간구할 때 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 손을 올리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만일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잘 아셔서 여러분의 말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대해, 사실 여러 말들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You know when I was a little kid in Sunday school, they used to always say, Now everyone bow your heads, fold your hands and close your eyes. We're going to pray. So I really thought that you couldn't pray unless your eyes were closed. And a lot of times I'd peek to see who was praying. And I'd say, He didn't pray, his eyes were open. Of course, they'd always nail me and they say how did you know? But I assume that because their eyes were open, they weren't praying. But I found that I can pray with my eyes open, but I found that it's better if I close them because if my eyes are open, then I'm oftentimes distracted by what I see and my mind is taken off of my prayer. I realize now that the teachers told us to fold our hands so we wouldn't be poking the one next to us when their eyes were closed. And so I can see the wisdom in telling the children to bow your heads, close your eyes, fold your hands. And I can understand the wisdom in that. But yet you don't have to have that position to pray.

내가 어릴 적 주일 학교에 다닐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기도할 때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손은 모으고, 눈을 꼭 감은 채로 “다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눈을 감지 않으면 진실한 기도를 드릴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중에 나는 눈을 뜨고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하는지 두루 쳐다 봅니다. 그리고나서 ‘야,, 누구누구는 눈을 멀쩡하게 뜨고 기도도 안하고 있더라’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되려 내게 따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지?”

나는 단지 사람들의 눈이 떠져 있는 모습만 보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눈을 뜨고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기기도 하고 또 주의가 산만해져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 정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기도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실 때, 두 손을 모으라는 것이 그 손으로, 기도하고 있는 옆사람을 쿡쿡 찌르라는 뜻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참 지혜로운 가르침 이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Some people say well, you got to be kneeling. Paul said, “Before whom I bow my knee” (Ephesians 3:14). And kneeling is a good posture for prayer. It sort of says something. It was a position that was more popular probably during the time when the King James Bible was

translated. When they would come before the king and they would kneel before the king; it was just the posture that a person would take which did signify a posture of surrender and honor to the king. And so I'm coming before the King of the universe, and so I can see where kneeling is a good posture that might express this honor and all that I wish to give to Him. But I also found that if I kneel by the side of my bed and put my hand, my face in my hands there at the bed and I start to pray, I find that quite often I can fall asleep in that comfortable position. Good position to pray in, but it's also a fairly good position to sleep in if you're tired enough.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기록하기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에베소서 3:15)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하는데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것은 옛날 킹 제임스 (흙정역) 성경이 번역되던 시대에 널리 유행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왕을 알현할 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자세는 한 사람이 왕에게 항복하며 존귀를 돌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내가 그 분에게 드리고 싶은 존귀와 영광, 이 모든것들을 표시하는 아주 좋은 자세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깨닫은 것은, 만일 내가, 침대 가장자리에 내려 앉아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침대에 놓고, 내 얼굴을 손에 대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편안한 자세에서는 종종 금방 잠이 들게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기에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척 피곤할 때, 잠들기에 아주 쉬운 자세이기도 합니다.

And so I have found that it helps me many times if I walk while I pray. I find that it's good if I will pray aloud because if I just pray in my heart or in my mind, I find that my mind has a tendency to wander over on other subjects. And pretty soon, I'm back in Kauai catching that wave that I missed. I got the extra kick this time and I really got a good slide. And so in just praying in my mind, my mind has a tendency to wander from the prayer. So I find that by praying aloud, by articulating my needs, my requests, that it does keep my mind from roaming off in other subjects. And so I love to just take a walk and talk with the Lord. It's very enjoyable to me to just take a walk and just talk to the Lord and just pour out my heart and my soul to Him as we're just sort of walking together.

또 나는 산책하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깨닫게 되었는데, 특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싶을 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생각이 다른 주제로 훌쩍 넘어 가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은 어느새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파도타는것에 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파도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살을 차는 숨씨도 아주 그만이구요. 그렇게 신이 나다가 다시 기도로 생각이 얼른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필요한 것과 요청할 것을 소리를 내어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이 헤메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깁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산책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또 내 마음과 영혼을 그에게 쏟아 놓는 것은 내게는 대단히 유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I have discovered that it isn't the position of my body that's important to prayer but the position of my heart. That's what God is looking at. He's not paying any attention whether or not my hands are lifted or I'm kneeling or my head is bowed and hands folded and eyes closed. What's the attitude of my heart, the position of my heart? That's what's important in prayer. So men, here's for you, "Pray everywhere,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

기도 생활에 관해 내가 발견한 것은, 중요한 것이 내 몸의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손이 올라가 있는지, 무릎을 꿇고 있는지, 또 내 머리가 조아리고 있는지, 손은 모았는지 게다가 눈은 감았는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Women, [well] adorn yourselves in modest apparel (2: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2:9),

There are fashions and styles that are designed to be sexually provocative. As a Christian woman, I do not believe that you should be wearing such styles. Jesus said “if a man looks upon a woman and desires her in his mind, he has committed adultery” (Matthew 5:28). And thus to wear a style of clothing that would so display your body as to create a lust or desire, you’re causing some man to sin. You don’t want to do that. Modest apparel.

요즘 옷들은 너무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스타일이나 유행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라면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마 5:28)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 보이려고 이런 종류의 옷을 걸치는 것은 음욕과 정욕을 일으켜 남자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정함을 갖추십시오.

Now I don’t believe that you, you know, should go to the other extreme to wear your apparel, you know, that immediately marks you as some kind of a weirdo. You know I think that there is just a lot of modest, beautiful style and I don’t think that this in any way should inhibit your shopping. You can plan, spend plenty of money on clothes that are not of the provocative nature. And stay out of Frederick’s. “Women adorn themselves in modest apparel,”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옷을 입어 너무 별난 사람으로 점찍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 충분히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쇼핑을 막으려고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옷들을 사기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한 옷들만 전문으로 하는 프레데릭 같은 곳에 가면 안되겠지요. “여자는 아담한 옷을 입기를 원하노라.”

with shamefacedness and sobriety; not with broided hair, or gold, or pearls, or costly array (2:9);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2:9);

Now this certainly has to be read in the context of the day in which Paul was writing and of the styles in those days, and styles change from time to time. I think that the best guide is just moderation. I think that as a Christian I should not seek to be ostentatious in my dress. And I think that this goes for the men as well as the women. Now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etty wild hairstyles, I’ve seen them on TV that you know are extreme. I don’t think that we ought to be

spending a lot of money to remain fashionable with the latest hairstyles and --or some of them are not the latest hairstyles. They go back a ways but they're very fancy indeed and costly.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당시의 스타일을 강조하지만 스타일이란 시간이 감에 따라 계속 바뀌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지침서는 중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의 의복이 사치나 허영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매들이나 형제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는 헤어 스타일을 대단하게 장식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본 그 스타일은 말하자면 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최신 유행을 따르느라 머리 모양을 바꾸려고 적지 않은 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것은 최신 유행과는 진짜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렇게 구식이면서도 대단히 사치스럽고 비싼 것이지요.

I don't believe in a lot of fancy jewelry myself. I think that there is a better way to spend our money. Met a man today who had a very beautiful Rolls Royce. No doubt he was desperate for transportation. No, he was trying to say something; gold chain with a big gold pendant with diamonds in it, gold, wide gold wristwatch with his name in diamonds on it. Of course he had his name on the license plate of his Rolls Royce. He's trying to say something. I sort of felt sorry for him to be lacking in self-confidence, to have to say it with jewelry or something else. You know, I'm successful, I've got it made. I'm in the One Million Club. It's sort of sad indeed. So moderation.

여러가지 비싼 귀금속으로 나를 치장하는것 보다, 돈을 더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은 세상에 몇 대 되지도 않는 아주 아름다운 롤스 로이스 차를 몰고 왔습니다. 물론 그사람도 교통수단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 다이아 몬드가 박힌 큰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팔목에는 자기 이름을 다이아몬드로 새긴 넙적한 금팔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롤스 로이스 차에는 그의 이름을 쓴 면허판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어 보석이나 다른것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과시하려는것은 '나는 성공했습니다. 보세요 다 내가 이룬 것들입니다. 나는 백만장자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용을 지킬 줄 알아야겠습니다.

(that which becomes women who are professing godliness) (2: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2:10)

That's how you ought to dress so that it doesn't take away from that beauty that glows upon a woman who is walking with Jesus Christ. You know there are times in a woman's life when she glows with beauty. I think that there is just something really about pregnancy. I think that women rarely are as beautiful as they are when they are pregnant in sort of the last stages. There seems to be just sort of a glow. There's just something beautiful about it. And when a woman is walking with the Lord, there's just that glow of beauty about their lives. There's just that special little touch of God upon them, which I'll tell you, Loreal or none of the rest can duplicate. I don't care how much you spend. That beauty of the countenance of a woman who is walking with the Lord is something that is to be desired. It's glorious to behold.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인이라면 빛나는 아름다움이 가려지지 않도록 옷을 입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삶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기를 가진 임산부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도 마지막 산월이

찬 여성의 모습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너무 눈부시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있는것 같습니다. 또 여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시고 섬세한 돌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화장품으로도 연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를 가꾸기 위해 열마를 소비하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자의 아름다운 자태야 말로 선망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보기만해도 영광된 모습입니다.

Now Paul brings up a very controversial issue here. *[He said]*, Let the woman learn in silence with all subjection. For I do not allow a woman to teach, nor to usurp authority over the man, but to be in silence. (2:11-12).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 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 지 아니 하 노니 오직 종용 할 쯤니라 (2:11-12).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I wish Paul had not written. Paul is, notice, prohibiting the woman to teach or to usurp authority over the man, and that would be in spiritual things and in spiritual issues. Yet in writing to Titus, Paul said let the older women teach the younger women. There is a place of teaching for women, the teaching of the younger women: how to love their husbands, how to keep their homes and to talk in godliness and righteousness. And my wife has taken that as her calling here at Calvary to teach the younger women. Having raised now the family and being freed from the obligation of having the children at home, she's now free to share with the younger women those secrets that she has learned in walking with God and seeking to raise a godly family.

바울이 쓰지 않았더라면 좋을뻔 했다고 내가 느끼는 부분들이 몇개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일들과 문체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나이든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을 위한 가르침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특히 젊은 여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남편을 사랑하는 법과 그들의 가정을 지키는 법, 그리고 경건하며 바른 말을 하는것들입니다. 내 아내의 부르심은 이 곳 갈보리 채플에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 기르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이제 그 일에서 놓여나 나의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운 지혜들과 비법들을 나이 어린 여성들과 자유롭게 나누고있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Paul mentions to Timothy how he had been taught in the Scriptures by his mother and his grandmother. And so the teaching of the children was larg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mothers. The only thing that is prohibited here is the teaching of men and usurping authority over them in spiritual things. That's the only thing that was being prohibited here by Paul. He is not prohibiting a woman sharing with men. Paul in writing to the Corinthians mentions the women praying or prophesying in a public assembly and he doesn't come down on them for that. He doesn't say that that's prohibited. And "he that prophesies speaks to the church for edification, for comfort, for exhortation" (I Corinthians 14:3), and I see these as areas where women can minister effectively.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를 통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주로 어머니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금지된 단 한가지 ‘남자를 다스리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유일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가 남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때 회중 가운데서 기도하는것과 예언 하는것에 관해서는 언급을 했으나 서로 나누는것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고린도 전서 14:3). 나는 이것들이야 말로 여성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In fact, I think that they really are most of them tremendous exhorters, especially if they've been married. We had one little woman in Huntington Beach who had a marvelous gift of exhortation. A little grandmotherly woman, but she could stand up and say, Now you know, life isn't always easy. We face a lot of trials but the Lord is on the throne. And so often we forget that God is on the throne and we must remember that. And she could just start exhorting, and man, you'd feel like going out and conquering the world. You know, I'm not afraid of anything. God is on my side. God is ruling. And she had a beautiful gift of exhortation. Just the area of teaching or usurping authority over the man is the only thing that Paul comes against here. And so let's be careful not to broaden out from what Paul has said.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들 중 몇몇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리더들입니다. 헌팅턴 비치 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조그마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분은 정말 놀라운 권면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작은 할머니이지만, 이 자매님이 어느날 일어서더니, “아시다시피,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이 보좌에 계시 죠.”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이 그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사는지요. 정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형제들이여, 세상을 향해 뛰어 정복하세요. 내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자매님에게는 아름다운 권면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나 권위를 넘어서 형제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울이 금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합시다.

13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Adam was first formed, and then Eve (2: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2:13).

The man was made first than the woman.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4,15 절 말씀.

And Adam was not deceived, but the woman being deceived was the one that was deceived. Notwithstanding she shall be saved in childbearing, if they continue in the faith and love and holiness with sobriety (2:14-15).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 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2:14-15).

Now Paul points out the fact that Satan came and deceived Eve. The suggestion is that women are mo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in spiritual things than are men. That's the suggestion that is made. It is interesting that many of the cults have been headed up by women. It is interesting if you'll look in the paper at the advertisements for the religious science churches and the advertisements for the theosophy and so forth, that so often women are the ones that are teaching in these off-branch kind of cults.

여기서 바울은 사탄이 와서 이브를 속였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속임을 당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를 한가지 들자면, 많은 이단 종파가 여성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종교 과학 교회를 선전하는 문구나 또는 신접에 대한 광고를 잘 살펴보면 그 이단 지파에서 이 주류에서 벗어난 이단에 관한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대부분 여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n the parables of the church, the kingdom parables in Matthew's gospel, a woman hid three, or put the leaven in the three loaves. In the church that we'll be covering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church of Thyatira, it was the woman Jezebel who the church had allowed to teach and to bring them into this idolatry. So a woman's place is not that of a teacher or the usurper of authority over men in these spiritual matters.

교회에 대한 비유로써,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의 비유를 보면,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살펴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이란 여자는, 교회가 그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허용함으로써, 잘못된 교리로 많은 이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위치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Now Paul said,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Notwithstanding she shall be saved (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략) 구원을 얻게 되리라’(2:15),

The word there is preserved in childbearing. One of the greatest fears of a woman in those days when she became pregnant is that of death during the birth of the child, for there was a very high rate of death of the mother in childbirth. And thus there was always a mixed feeling when a woman realized that she was pregnant. There was that feeling of joy and exultation; we're going to have a baby, but there was that underlying fear, I wonder if I will survive the birth of the child, because so many died in childbirth because of their limited medical knowledge and facilities.

여기 이 단어는 ‘아이를 출산하다’에 쓰이는 말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 중의 하나는 아이를 낳는 동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엄마들이 분만 중에 죽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임신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주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기쁨과 환희가 있지요, 하지만 반면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살아 남을 수 있을 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의학적인 지식과 그 시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So Paul is encouraging them that the Lord will be with them during childbirth. They will be preserved. You don't have to fear that you're going to die in childbirth. The Lord will preserve you and keep you through this experience. If you just "continue in the faith and in love, and in holiness with sobriety," you don't need to fear death during the delivery of your child.

그래서 바울은 아이를 낳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이 모든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또 절제함으로 거룩함에 거하면, 아이를 낳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nd now may the Lord enrich your hearts in His love and in His truth, that you may walk in fellowship with Him in a way that is pleasing unto Him. That the Lord will minister to you in a very special way in your hour of need. That He will come and take you by the hand and comfort you in your time of sorrow. That you just might experience in these days a greater realization of God's love and of God's touch upon your life as He ministers to you through His abundant mercy and grace in Christ Jesus.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진리로 부요케 하시고 또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 그와 동행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하며, 여러분들이 슬퍼할때 그가 여러분가운데 오셔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삶을 향한 돌보심을 이날에 여러분의 삶에서 인식하고 경험하길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자비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빕니다.

May God be with you, watch over you, and keep you in His love. In Jesus' name.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며,, 그의 사랑 안에서 지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onight we will be studying First Timothy three and four. It is interesting as Paul writes to Timothy on several occasions, he uses phrases that are interesting to me. He said, This is a faithful saying, it's worthy of all acceptance. Here he says, beginning chapter three,

이제 디모데 전서 3 장과 4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때에 그가 사용한 구절들이 내겐 흥미롭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란 말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3 장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말을 합니다.

This is a true saying (3:1),

미쁘다 이 말이여

Again, he'll say, "This is a faithful saying worthy of all acceptance." He'll say, "Without controversy." He speaks to Timothy with interesting phrases affirming the truth of what he is declaring to him. "This is a true saying,"

그는 "이것은 모든 것을 받아 들일 가치가 있는 미쁜 말입니다" 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고 있는 진리를 확인 하려고 재미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If a man desires the office of a bishop [or overseer], he desireth a good work (3:1).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3:1).

Not a good position, but a good work. The word "episcopize" which is translated here "bishop" is really a word that means an overseer. One who takes the oversight. The word translated "elder" is the word, "presbytery" or "presbyteries." The presbytery is the elder of the church. They name implies an older man, and in the communities they had as the governors of a community the "presbyteries."

(감독은) 좋은 지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피스코포스"란 단어는 "감독"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감독이나 관리인이라는 뜻이며 감독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프레스비테리' 혹은 '프레스비테리스'는 '장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프레스비테리"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 명칭은 보통 나이가 많은 남자를 의미하며 그들은 지역 사회에서 "프레스비테리스"는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The English had the alder men who were appointed as the judges within a community and the term "alder men" is actually "elder men." It was declared that a person should not be a "presbytery" unless he was over the age of fifty. The "episcopize," on the other hand, was the man who was the overseer. He was the often the minister of the church. One who would oversee the church. And from this, we have a great division in the church today between the

Episcopalians which comes from the “episcopize” and the Presbyterians which comes from the “presbyteries.”

영국에서는 ‘얼더맨’이라 부르는 시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이었습니다. ‘얼더맨’이란 용어는 사실은 영어의 ‘엘더맨’을 말합니다. 장로란 뜻이지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남자가 나이가 50 세를 넘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에피스코피즈’ 는 감독관이었습니다. 흔히 그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교회의 사역자이기도 했는데 주로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 ‘감독자’에서 출발한 성공회와 ‘장로’로부터 출발한 장로교의 큰 분류가 있게 되었습니다.

So the difference between a church being ruled by the elders or the church being ruled by the “episkopos,” the overseer. And it is interesting though as you look at it in the word of God, they probably were one and the same. As you study it in the New Testament, the use of the words are often interchangeable. And when Paul was writing, he addressed the elders but of course, that would include the “episkopos” also. When he called for the elders of Ephesus, it would have been wrong for him to have called for the elders without the “episkopos” and so as you look at it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a strong case can be made that the terms are almost synonymous or interchangeable, at least in their usage in the New Testament.

그래서 장로에 의해 주관되는 교회와 감독관에 의해 주관되는 두 교회는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요, 같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신약을 공부하노라면 단어 사용에 종종 서로 교환이 가능한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장로들 앞으로 부쳤어도 당연히 감독들을 포함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을 때 감독을 빼놓고 장로들 만을 불렀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여겨 질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적어도 신약성경에서 사용한것을 보면 용어가 거의 동의어 이거나 서로 교환할수 있는 용어들이라고 강조할수 있습니다.

So “if a man desires this office of an overseer of the church, he desires a good work.” But these are the qualifications for the man.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감독관이 되고자 하거나 좋은 일을 섬기고자 하면 그에 따른 자격이 요구되었습니다.

Now that ought to just about exclude anybody. He must be,
누구든지 적용되는 것이지만 , 2 절 말씀에,

The overseer then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3: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3:2),

In that particular time, the marriage vows were in the pagan world not really held in high esteem. The Greek culture had a saying that every man should have a mistress for his entertainment, a concubine for his sexual pleasure, and a wife to bear his legitimate children. But the wife was looked upon as, more or less, a chattel, an object.

그 당시에 무신론자들의 세계에서 혼인서약은 다소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모든 남자는 여흥을 위해 연인을 하나 두고, 성적쾌락을 위해서는 첩이

있어야 하고 그의 합법적인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 아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저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Now in none of the cultures in those days did a wife have the right of divorce. That was something that only the husbands had. And even in the Jewish culture, a husband could get a divorce for just about any cause. And even to that time, in the Jewish culture in many areas, polygamy was practiced. Josephus speaks about those that were had three or four wives. And polygamy was a practice even in that time in the Jewish community.

그 당시에 어떤 문화권에서도 아내가 이혼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오직 남편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죠. 심지어 유대인 풍습에도 남편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곳곳에 유대 풍습에 보면 일부다처제가 성행했으니까요. 요세푸스는 한 사람이 세 명 혹은 네 명의 아내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까지도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The church is to be a separate and distinct entity within the world. Standards that are higher than the world. And thus he establishes the standard for the “episkopos,” a man who was an overseer in the church, he should be “the husband of one wife.” He should be,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다른 개체입니다. 따라서 기준도 세상의 것보다 높습니다. 이리하여 바울은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들을 위해 기준을 세웠는데,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That is, in his overseeing of the flock of God. He needs to take careful oversight. He needs to be,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주의 깊게 돌보며 감독해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Vigilant, sober, of good behaviour, given to hospitality, and able to teach (3:2);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3:2);

So these are the beginning of the qualifications. Next of all, he’s

이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자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Not to be given to wine, no striker (3: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3)

(약물중독자도 물론 기준에 미달되지요.)

not greedy of filthy lucre; but patient, not a brawler, not covetous; One that rules well his own house, having his children in subjection with all gravity; (For if a man know not how to rule his own house, how shall he take care of the church of God?) He’s not to be a novice, lest being lifted up with pride he fall into the condemnation of the devil (3:3–6).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3:3-6).

So this is what Paul instructs Timothy as the qualifications for an “episkopos,” an overseer. Now if you will read Paul’s letter to Titus, he gives to them the qualifications of a “presbytueros,” an elder. And you find that as he gives the qualifications of an elder, they are pretty much similar to the qualifications of an “episkopos” or an overseer.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감독자로서의 자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디도서를 읽어 본다면, 장로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장로들의 자질에 관한 것을 말할때 그 내용들이 감독들에게 한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Next he turns to the deacons.

다음으로 집사에 관하여, 8 절 말씀입니다.

And likewise must the deacons be grave [*or sober*], not doubletongued, not given to much wine (3: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 구 이 언 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3:8),

This is, of course, a little interesting in that the overseer, the “episkopos,” was not to be given to wine; the deacon was not to be given to much wine. That probably is cause for a lot of persons to seek the job of a deacon rather than an elder.

감독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지만, 집사들에겐 ‘너무 많은 포도주는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보다는 집사직분을 갖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Paul the apostle, in writing to the Corinthians, said,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all things are not expedient.” Some things can impede my progress towards my goal.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not everything builds up. Some things tear me down.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he said, “but I will not be brought under the power of any, or the influence of any” (I Corinthians 6:12).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어떤것들은 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것이 합법적이기는 하나 모든것이 나를 세워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것은 내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 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전 6:12).

We have a very interesting case in the Old Testament when God commanded Moses to build the tabernacle and He gave him specific instructions as to the materials and the dimensions and the sizes, the whole thing. He gave him his careful instructions in building. Once they had built the tabernacle, had set it up, had set up the altar and the whole framework for the sacrifices, the time came to inaugurate now the temple or the tabernacle worship of God. And so the altar was built, the sacrifice was placed upon it and fire came from heaven and sort of lit the fire of the altar. A supernatural manifestation of God. The presence of God came down,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The priest, because of the glory of the Lord, sort of swooned, they weren't able to stand up.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짓기 위한 재료와 규격과 크기와 모든것에 관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장막 하나 짓는 데도 신중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웠고 제단을 설치하고 희생물을 위한 뼈대가 갖추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의 낙성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단이 세워졌고 희생물이 제단에 놓였으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에 불을 부쳤습니다. 초 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거의 기절하여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And in the midst of this moving of God among the people, a couple of Aaron's sons got excited. And they had little bowls with incense that they were to offer before the Lord and they went in to offer this incense in the excitement of the moment and the fire came from the altar of God and consumed them. And later, God commanded Moses to speak unto Aaron that when they were doing the service to God, they weren't to drink wine. Made very specific commandments. The intimation is that the two sons of Aaron perhaps had been drinking a little wine and had lost their sense of good judgment. And that is why they were consumed by the fire of God when they sought to offer strange fire before the Lord.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한창일 때, 아론의 아들들은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앞에 드려야할 향을 담은 작은 대접들을 가졌고 그들이 흥분된 순간 이 향을 바치러 들어가자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할때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것을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특수한 명령이었지요. 이 암시는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포도주를 마셔서 그들의 판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바치려고 했을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살라 버린 이유입니다.

God wants us to serve Him with a clear head, with a clear mind. Now a lot of people get very godly minded when they get drunk. And we've had them call the house two, three in the morning and my wife sleeps on the side where the phone is, I don't know why but she does. And sometimes the phone will ring in the middle of the morning and someone will start telling, I want to tell you what a wonderful husband you have and all. And she'd say, "Here, tell him," and she hands the phone to me. The praise that comes from the lips of a drunk really don't do much for you. That's what they may think when they're drunk but what do they think of me when they're sober?

하나님은 우리가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대단히 경건해 집니다. 새벽 두시, 세시에도 상관없이 전화를 하기도 해서 나의 아내는 전화가 있는 구석에서 잠을 잡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어찌다 전화 벨이 아침에 울리면 누군가 말을 시작할것입니다. 당신이 너무나 훌륭한 남편을 가진것을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리고는 "여기 있으니 그에게 말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게 줍니다. 술이 잔뜩 취할 입술에서 흘러 나오는 칭찬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술에 취할때 생각하는것이지만 그들이 정신이 맑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것입니까?

And so in our worship of God, no artificial stimulants. He wants our worship and praise to come from a heart and from a mind that is not under some kind of a false stimulant. So the overseer, the one who had the responsibility of overseeing the church, not to be given to wine. Whereas the deacons and these were the people who oversaw the more practical aspects of the church in those days, the administering of the church's welfare program and things of this nature, they were not to be given too much wine.

하나님을 예배할때 인위적인 자극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거짓 자극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심령과 마음에서 우러난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감독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당시에 집사들은 교회의 여러 면을 더욱 실질적인 면을 돌아보는 자들로, 교회의 복지프로그램과 그 외의 일을 관리해야 함으로, 너무 지나치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The wine in those days, of course, was drink by just about everybody. It was mixed three parts of water to two parts of wine. And of course, at that ratio it would take an awful lot to get a person drunk and usually you'd get too full before you could get drunk. But it was a diluted form and really, it was drunk in lieu of the water which in many places was not fit to drink. You remember Paul said to Timothy to "take a little wine for your stomach's sake and your oft infirmities" (I Timothy 5:23).

물론, 당시의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 였습니다. 3 컵의 물에 2 컵의 포도주를 섞은 것이죠. 물론, 그 비율에서 한 사람이 취하려면 상당한 양의 포도주를 마셔야 할것이며 취하기 전에 너무 배가 부를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석된 것이며 여러 곳에서 물을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 대신 마셨습니다. 바울이 디모테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5:23).

So a deacon not to be given to much wine. We are told "not to be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Ephesians 5:18). They also are,

그래서 집사도 너무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엡 5:18).

(이제 8 절에서 10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not to be greedy of filthy lucre; Holding the mystery of the faith in a pure conscience. And let these also first be proved; then let them use the office of a deacon, being found blameless (3:8-10).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찌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3:8-10).

So much of the same requirements for the elders are also for the deacons. Deacons are to prove themselves.

장로들에게 주어졌던 이 같이 많은 요구 사항들은 집사들에게도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자질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11 절에,

And even so wives (3:11)

여자들도 (3:11),

Now in our King James, you notice “must their wives” is added because the translators thought that he was probably referring to the wives of the deacons which is possible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Paul is just referring to the deaconesses. And that this is in reference to those women who would take a activity within the church body in the office of a deaconess. And “so also wives are to,”

킹 제임스 성경(흠정역) 에 보면, “아내들도 당연히” 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자가 판단하기에 바울이 언급한 것들이 집사의 아내들에게 해당된다면, 여자집사 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조직 안에서 여자 집사로 섬기는 이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하기를 “아내들도 그렇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be grave, not slanderers, sober, faithful in all things. And let the deacons be the husbands of one wife, ruling their children and their own houses well. For they that have used the office of a deacon well purchase to themselves a good degree, and great boldness in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3:11–13).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찌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찌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3:11-13)- 라고 말합니다.

And so Paul here writes the qualifications for these offices.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직책을 위한 자질을 말합니다.

And he said,

14, 15 절 말씀,

These things write I unto thee, I hope to come unto you shortly: But if I [don't, if I have to] tarry here awhile, I want you to know how you ought to behave yourself in the house of God,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the ground of truth (3:14–15).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3:14-15).

Timothy was left at Ephesus by Paul to strengthen the church. It is to Timothy in Ephesus that Paul is writing and instructing him in the things of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좇아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교회의 행정을 세우는 일에 대해 바울이 그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Now having declared the qualifications for the deacons, the overseers and the deaconesses, again when you get to these qualifications we realize that very few people could really qualify for these offices. These characteristics and traits that are required for those in leadership roles are stricter than the average, you might say. It takes a life of commitment. And many people may, as the result of these requirements, feel unqualified to take a position of authority within the church. And so Paul in verse sixteen declares,

집사들과 여자 집사들, 그리고 감독자의 자질에 대해 말했고, 우리가 이 자질을 다시 살펴볼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인품이나 특성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것은 삶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되는 사항의 때문에 교회안에서 권위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 절에 말하기를,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3:16):

Godliness is godlikeness.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These characteristics and traits that are described are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of God. God wants us to be like Him. A man who is an elder in the church or an overseer in the church is really one of God's representatives to the people. And one of the most awesome responsibilities is that of being God's representative. People looking at the leadership to understand God. God wants me to be like Him so that as people look at me, they can understand what God is about. And that is all the understanding that many people will ever have of God is what they observe in the life of the followers of God. So each of us are God's representatives to the world. But those who take the position of an elder or an overseer have even a greater responsibility of being God's representatives to the people. And God doesn't take lightly how we represent Him.

경건이란 하나님 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성품과 특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감독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쳐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닮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관찰되어 지는 것으로 그들이 섬기게 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나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대표하는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James tells us that we should "not be many masters, knowing that we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James 3:1). We are told "unto whom much is given, much is required" (Luke 12:48). And so for those who in the position of overseeing, there is a tighter standard by which they must live. Blameless, of good reputation, really even outside of the church, by the manner of life that you live that it doesn't bring blame unto Jesus Christ or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고 권면합니다 (약 3:1). 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 □□ □□□” (눅 12:48)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단호한 규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밖에서조차도 흠잡을 것이 없고, 좋은 평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 분께로 비난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It has been the sad tragedy of the church's history that not often does the leadership take that awesome responsibility of representing God seriously enough. Paul talks about falling in the snare of the devil. And Satan surely seeks to trap ministers. And it is always a tragedy and a very sad thing when you see a servant of God being trapped by the enemy because of the reproach that it brings upon the Gospel. As Nathan said to David concerning his sin with Bathsheba, "You've caused the enemies of God to blaspheme" (II Samuel 12:14).

교회역사의 슬픈 비극은 다름아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신중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마귀의 꾀계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확실히 사역자들을 함정에 몰아 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적의 덫에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까지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밋세바와 범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하 12:14).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Satan, I think, works harder on those who have a greater influence than those of lesser influence. I think that the more the Lord uses you, the greater are the temptations that the enemy places in your path. This past year, two of the most promising, talented of the young ministers in our Calvary Chapel outreaches fell into the snare of the enemy.

물론 문제는 작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용하시면 그럴수록 더 사단은 여러분의 길목을 가로 막고 더 큰 유혹으로 여러분을 방해 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교회의 지교회에서 두명의 아주 촉망되고 재능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 악한 자의 덫에 걸려 들어 넘어졌습니다.

One, thank God, has been delivered and has been restored. But the other is still ensnared. And it grieves me. It breaks my heart because I love these young men like a father loves a son. And I was just so thrilled with their ministry, the effectiveness of their ministry, the effectiveness of their communication. Their ability to teach. It was a thrill to see what God was doing through their ministry and through their lives and say we're touching thousands of people. To see them ensnared by the enemy is a just a tragedy and a grievous thing to my heart.

한 사람은, 감사하게도 다시 회복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를 슬프게하고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역자는 내게는 친 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사역과 영향력있는 사역과 또 그들의 효과있는 의사소통에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 행하시는 것으로 수 천명이 영향을 받는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비극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것입니다.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God wants us to be like Him. That's His purpose in creating us. And when He created us, He created us like Him, He made us in His image and after His likeness. It was the purpose of God that we be like Him. What is He like? God is love. God wants love to dominate our being. God is pure. God is holy. He wants us to be pure. He

wants us to be holy. God is kind. God is compassionate. God is patient. He wants us to be kind, compassionate, patient. He wants me to be like Him.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Because I say, Hey, yes, I want to be like God. But how to be like God is another thing. There are many people who accept that, Yes, being like God is the great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happen to a person. And they try to be like God but we find that whenever we try to be like God, there are other forces at work within us, hindering us from our goals.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는것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와 같아 지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또한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순전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동정심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것은 인간에게 일어날수 있는 최대의 사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s Paul the apostle described in Romans chapter seven, "I consent to the law of God that it is good. But I find that there is another law at work within my members, within my body. And the good that I would I do not: and that which I would not, I do" (Romans 7:16,19,23).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것과 같이"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 하노니,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롬 7:16, 19, 23) 라고 바울을 말합니다.

I consent to that which is good. But how to perform it, I just can't find. And we find ourselves in that position so many times. I consent this is right, this is good. That's what I ought to be doing. But how to perform it? That's where the problem lies. And he cried out, "O wretched man that I am! Who sha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Romans 7:24)?

나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 하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발견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입장에 처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좋다는것을 동의하며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합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짖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롬 7:24)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being like God. It's a great mystery that has been solved. It was solved in the incarnation. So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is mystery of godliness." But God solved the mystery through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for,

바울이 말하는 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그 큰 비밀은 성육신으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 비밀을 푸셨던 것입니다.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3:16),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3:16),

A plain, clear, positive declaration that Jesus Christ is God.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And the purpose of the incarnation was to bring man to godlikeness or to help us to be like God.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솔직하고 명료하며 긍정적인 이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사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주기 위한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것입니다.”

He was justified [or proved to be righteous] in the Spirit (3:16),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3:18),

The Spirit led Him in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of the devil and He passed every test. He resisted the temptation. He remained true and obedient unto the first principles of God. He was “justified or proved to be righteous in the Spirit.”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 하셨습니다. 유혹을 견디셔야 했죠. 그는 하나님의 첫째 원칙에 진실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옳다고 인정되었고 또 증명되었습니다.

He was seen of angels (3:16),

천사들에게 보이시고(3:16)

After His temptation, the angels came and ministered unto Him. Also,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ngels had never seen God until the incarnation.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of angels.” God dwells in a light that man cannot approach. Those who had visions of God never had a vision of a form. There was always just that brightness of the glory that shone forth from His being. Looking directly into a light, a brilliant bright light, all you can observe is just light.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 육신이 나타나기까지 천사들은 하나님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비밀이 크지요. ‘□□ □□□□ □□□ □ □□□ □□□ □□□ □□□□ □□□□□ □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도 그 형상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시는 곳에서는 비치는 영광의 광채만 항상 있었습니다. 빛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 밝은 빛이 비추어 오직 그 빛만 볼수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out in the woods at night and it’s been dark and someone turned one of those five-cell flashlights in your eyes? Have you ever been a kid at camp? Those counselors always carried those five-cell you know and they put it right in your eyes. All you see is the bright light in your eyes. You don’t see the flashlight. You can’t even see the counselor. All you all you see is this bright light that is shining in your face. But you have no sense of form because all you can see is the light. You don’t see the little bulb, you don’t see the filament within the bulb, you just see the brilliance of the light.

혹시 밤중에 숲속에 나가 본적이 있습니까? 아주 어두운 데, 어떤 사람이 회중전등을 눈에 비춘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캠프에 혼자 남겨진 경험이 있습니까? 회중전등을 항상 들고 다니는 상담 교사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눈에 밝게 비쳤을 것입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건 눈에 비춘 밝은 빛 뿐입니다. 회중전등도 보이지 않고 상담 교사도 똑바로 볼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던 밝은 빛이 여러분이 볼 수 있던 전부였을 것입니다. 빛이 보인다 해도 그 형체를 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 안에 작은 전구를 보거나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밝게 빛나는 빛만 보았을 것입니다.

So God, the glory of His presence so overwhelming. The brilliance that comes forth from this Creator of the universe. Call it energy or whatever you wish, that must be emanating forth from God. It is possible that the angels had never even seen the form but only the brilliance coming forth from His presence. Until He was “made flesh and He was then seen of angels.” He was,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즉 우주의 창조자로부터 오는 이 밝은 빛은 압도적입니다. 그것을 에너지라고 부르거나 무엇이냐고 부르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실” 때 까지는, 천사들이 결코 그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 없었지만, 오직 그의 임재 하심으로 부터 오는 밝은 광채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 절 말씀,

preached unto the Gentiles (3:16),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3:16),

As Paul tells King Agrippa concerning his Damascus road experience, he tells him that the Lord had called him to go unto the Gentiles,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From the power of Satan unto God. And then He was,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자신의 경험을 아그립마 왕에게 얘기할 때, 주님이 그를 불러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신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16 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to glory (3:16),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3:16),

All over the world, those who believe on Jesus Christ. Those who believe upon God who was manifest in the flesh. And then He was, received up into glory.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며 또 영광가운데 올리우셨다고 말합니다

He said I came from the Father, I’m going to the Father. In His return to the Father, the cycle was complete. His ministry was accomplished. Jesus came to manifest to man what God is. And He was the true and the faithful witness. All that we need to know about God, we discover in Jesus Christ. “No man has seen the Father at any time but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manifested him” (John 6:46). Made Him known, declared Him.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으며 또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되 돌아가는 것이 완벽한 끝맺음입니다. 그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를 나타내며 그가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임을 나타내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 장 46 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 (요 6:46)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리셨고 그분을 선포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 장

“God, who at sundry times and in different ways spoke unto our fathers through the prophets, hath in these last days spoken unto us by his own dear Son, whom he hath made heir of all things, who was the effulgence of his glory, [or the outshining of His glory]” (Hebrews 1:1-3). So He fulfilled His purpose in manifesting God to us and He fulfilled the purpose of redeeming the world back to God through His death upon the cross.

히브리서 1 장 1 절로 3 절까지 말씀을 보면, “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을 달성하셨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구속하시려는 목적도 달성하셨습니다.

So now as He returns to the Father, He is promising that He is going to send to them the Holy Spirit. One who would come alongside of them to help them. “I will leave you without help,” He said, “But I will pray to the Father, and he will give to you another Help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John 14:16,17). And He tells us that when the Spirit comes, we will receive power. What kind of power? Power to be like God.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You cannot be like God with your best effort no matter how hard you try. It isn't within our nature or our power to change our nature to be like God. The only way I can be like God i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orking in me and changing that nature.

요한복음 14 장에 보면,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들의 곁에서 돌보아 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또

그는 말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능력이요, 경건의 크신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처럼 바꿀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품에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본성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같이 변화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있는 오직 한가지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And so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upon the church was the proof that Jesus had indeed ascended to the Father. Because that was His promise when He came to the Father, He was going to send the Comforter. It is necessary for you that I go away because if I go away,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cannot come. That helper, the Holy Spirit. But if I go away, I will send Him. And so Jesus sent the Holy Spirit and through the power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within my life, godlikeness is now possible. And as I am yielding myself day to da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me everyday is making me a little more like God.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 가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 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가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해지는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더욱 주님과 같이 되게 만드십니다.

As Paul the apostle said, “I ha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Neither do I count myself perfect, but I’m pressing towards the mark” (Philippians 3:13-14). What is the mark? Being like God. Godlikeness. And so I’m on my way. And as John said,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it doesn’t yet appear what we’re going to be: but we know when he appears, we’re going to be like him” (I John 3:2). One of these days His work will be complete in us and we will be just like God. And the purposes of God will now be accomplished in His creation for man. For God created man to be like Him and through Jesus Christ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 am being restored into the image of God.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 장에서 말하기를 “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13-14) 했습니다. 여기서 꾀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경건 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갈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3 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것입니다. 인가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곧 완수될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 같이 되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But that mystery is solved in the incarnation and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Jesus has sent.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비밀은 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과 그의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Now the Spirit speaks expressly, that in the latter times some sha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seducing spirits, and doctrines of devils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 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4:1)

Here Paul speaks of a departure from the faith. There are some who claim that such a thing is impossibility. But “the Spirit speaks expressly, that in the latter times there would be some who would depart from the faith.” Jesus in speaking of His return said, “When the Son of man return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Luke 18:8) A question. He also told His disciples that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 earth abounding, the love of many will wax cold. And so it means that living in the last days is going to be living under a great-pressured situation. We are finding that to be true.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을 떠나는 배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후 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에 대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 장 8 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눅 18:8). 그는 또한 ‘□□□ □□□□ □□ □□□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산다는 것은 대단히 가중한 압박을 받으며 살아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The opportunity of fulfilling a person’s fantasies for sin are all around. You can indulge yourself now in just about any type of a sinful fantasy that you may desire. Read the personal columns in your Santa Ana Register. Any kind of a experience that a person may desire is available for a price. Pornography, the openness of our society, the breakdown of the moral values, has opened a door of opportunity for anyone to just indulge themselves in their flesh.

인간이 죄를 위한 환상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동안 자신이 꿈꾸어 오던 욕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 개재된 개인 정보란을 보십시오.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고안된 별의별 종류의 방법들을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사회에 개방되어 도덕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음란한 영상물은 누구에게나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기회的大门을 열어 주었습니다.

Jesus said “because the iniquity of the earth shall abound, the love of many will wax cold.” The Spirit speaks expressly of the latter days that many will be departing from the faith.” It is not easy to live the Christian life in this world in which we live today that is so totally given over to the flesh. You cannot look at any of the media without being exposed in some way or other to the things of the flesh. It’s not easy to live a Christian life now. These last days it is going to be harder. To keep the faith, it is going to take a positive commitment. As Daniel, you’re going to have to determine in your heart that you’re not going to defile yourself with the opportunities in the world around you. But that you’re going to live completely and totally for God a life of godlikeness and you cannot do it without the power of the Spirit.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육체 중심으로 넘어간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매개체든지 간에 이런 방법 혹은 저런 방법으로 육체적인 것을 노출 시키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말김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당신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기회로 당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닮은 생활을 해야하며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렇게 할수없습니다.

So the Spirit speaks expressly of the last days. It's going to be tough. Many wi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seducing spirits.” And how much seduction is in the world today! Seductive spirits are in the world today. I mean it's there, it's all around you. The seductive spirits. And “to doctrines of devils.” And I'll tell you, in our society today men are espousing the doctrines of devils, telling you that any kind of life is acceptable to God. The Lord said,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believe the truth, God turned them over to believe a lie” (II Thessalonians 2:10-11). And men would believe a lie rather than the truth.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삶은 힘들어 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좇게 될까 주의하세요”. 오늘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의 영들이 우리 주변 뿐 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널려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 주변과 세상에 퍼져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삶을 다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 (살후 2:10-11).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대신 거짓을 믿게 될 것입니다.

And I have found this so true today. You take any kind of a screwy heresy and it can spread all over the world in six months. If you want to become popular, just dream up some new heresy for the church. Oh how I wish to God that they would be more careful in the things that they allow to be proclaimed. I wish they would just stick to the Word of God. People are so reticent to receive the truth but so ready to receive a lie, a heresy.

요즈음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괴상한 이단 종파를 접했다면, 이것이 전세계로 퍼지는 것은 6 개월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니 만일 유명해 지고 싶은 게 꿈이라면, 이단종파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보다 빠른 방법이겠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이 선포하는것에 좀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으나 거짓말과 이단은 너무 쉽게 받아 들입니다.

People are so ready to believe that California is going to get wiped out during the Olympics in an earthquake. How many people have called all worried, you know? Oh my. This earthquake's going to come. I have lived through at least ten of these visions and it hasn't come yet. Now I'll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I'll make my own predictions now. When the Olympics are over and the earthquake did not hit, they are then going to start taking credit that

their prayers kept it from happening. I mean, there's no way they're going to loose. They fasted and they prayed and they saved California.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가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쉽게 믿습니다. 낭설에 얼마나 많이 들 걱정하며 전화를 하는지 아세요?. 지진이 올 것입니다. 나 역시 살면서 이 환상들을 적어도 10 번은 지났지만 아직 그것은 오지 않았습디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곳의 수많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로써 막았다는 것으로 영광을 취하기 시작할것입니다. 그들이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해서 캘리포니아를 구했다고 할것입니다.

How look how that thing in just a couple of weeks time has swept through the whole community. Our switchboard has been swamped this week with this nonsense. Hey, if you want to predict that there's going to be an earthquake in California, man, there's nothing to that.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I mean, this is earthquake country. We're surrounded by faults. But I predict that we won't have a major earthquake during the Olympics.

지난 두 주간 동안 온 지역을 어떻게 휩쓸고 지나갔는지 보십시오. 우리 전화 교환원이 이번 주에 이 터무니 없는 얘기들로 인해 아주 탈진이 될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진은 일어나겠지요. 내가 말하는것은 이 지역은 지진이 잦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질 단층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언하건대, 올림픽 기간동안에는 절대로 큰 지진이 없을 것입니다. 4 장 2 절을 보겠습니다.

Speaking lies in hypocrisy; having their conscience seared with a hot iron (4:2);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4:2);

I really wonder how these evangelists and all can really sleep at night with all of the gimmicks that they pull. "Speaking lies in hypocrisy." I don't know if you've been cursed to be on their mailing list or not. But we keep a file and the things that they can dream up to extract money from people. And you wonder, How can they do that? In the name of God, how can they tell such outlandish lies? The only answer is "their conscience has to be seared with a hot iron." They have no conscience. For them to live in palatial mansions, do the things they do and then get up and say, Friends, we need your money.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도자들과 많은 이들이 속인 모든 속임수를 써 먹으면서 어떻게 밤에 잠을 편히 잘수있는가 의아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 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들의 주소록 명단에 올려져 있는것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짜내려고 꿈을 꾸는 자료들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야비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양심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 궁전 같은 저택에 살면서 평상시에 하는 일을 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하는 소리는 " 친구여, 우리는 당신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 뿐입니다.

Our tour guide in Israel gets after me. He said, "You don't know how to operate a tour." He said, "Tour leaders with famous names never travel with the people on a tour. They don't travel on the jets with the people, they fly over in their own private jets. And they don't get on the buses with the people, they get in private limos and they'll meet the people twice during the tour and then fly home in their jets." He said, "You travel all around with the people. He said, You

never make deals with the tourist shops and all." And he said, "You just don't know how to operate a tour." He said, "Now you ought to come and watch some of these fellows at work."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우리 관광 안내원이 내게 해 준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행사 운영 하실줄을 모르시는군요. 이름 있는 고위직의 여행 인솔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 여행객들과 같이 다니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버스도 물론 안타고 전용 리무진을 탑니다. 여행일정 중에 사람들은 겨우 한 두 번만 만나고 다시 제트기를 타고 돌아 간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번번히 여러 사람들과하고 여행을 다니시는데. 다음엔 여행사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행사를 운영 하실줄 모르시네요. 이제 오셔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것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The conscience is seared with a hot iron. How in the name of God can they do these things? Except their conscience is just seared with a hot iron. Now in some of these last day weird things, there are those who will be,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이런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받지 않고는 그럴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있을 망칙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3 절,

Forbidding to marry (4:3),

혼인을 금하고(4:3),

Of course, marriage is becoming almost a thing of the past. It's, "Move in with me." And there are so many just move-in relationships without marriage. That's the thing of the day.

결혼도 이제는 거의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랑 살자’그럼 끝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는 일은 이제 너무 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3 절 말씀,

Abstaining from meats, which God has created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of them which believe and know the truth (4:3).

식물을 폐하라 할 터 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3).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4:4),

감사함으로 받으라 (4:4),

A lot of the cult things and occult things get into vegetarianism. But Paul tells us these things meat is to

신흥종교나 사교에 심취한 이들은 채식주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고기도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 절 말씀,

For the meat is sanctifi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4:5).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So pray over your meal and eat it.

그래서 식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6 절,

If thou put the brethren in remembrance of these things, thou shalt be a good minister of Jesus Christ, nourished up in the words of faith and of good doctrine, whereunto thou hast attained (4: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4:6).

So remind the brethren of these things, Paul said, writing to Timothy. If you do, then you will be a good minister of Jesus Christ as you nourish them in the words of faith, sound, good doctrine.

이것으로 형제에게 깨우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형제들을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강건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But refuse the profane and old wives' fables, but exercise thyself rather unto godliness (4: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4:7).

Now you can waste a lot of time in earthquake scares, reading a lot of the junk that's published. Better to exercise yourself unto godliness.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걱정한다든지 혹은 엉터리얘깃거리에 정신이 팔려 귀한 시간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 절에 보면,

Bodily exercise profits a little [or for a little] (4:8) □□□ □□□
□□□ □□□ □□□:

Doesn't really forbid it. It's good, got a little profit to it. But more profitable is.

육체의 연습을 실제로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고 약간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godliness it's profitable unto all things, having the promise of the life that now is, and of that which is to come (4:8).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4:8).

Years ago when I really made my choice between Medicine and as a career and the ministry as a career, as the Lord was dealing with me and speaking to my heart concerning the ministry, He pointed out to me that by going into medicine, by becoming a medical doctor, by ministering to people's physical needs, I could help people but at the best, it would only be temporal. So they're strong and healthy and live for a hundred years. But if I would go into the ministry and minister to the spirit of man, healing the spirit, bringing spiritual healing, that I would be involved in something that would benefit them eternally. And He more or less put it up to me, How do you want to benefit man? In the temporary way or in an eternal way? And when He put it to me that way, I had no choice.

오래전에 나는 의사의 직업과 목사의 직업,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할때,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하여 나를 다루시며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되어 의료업에 종사함으로써 할수있는것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도움을 줄수있으며 그것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도울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지면 약 100년 살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영을 사역하고 영을 치료하며 영적인 치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원한 유익을 줄수 있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려는지 내가 선택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선택할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선택할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을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Now Paul is saying the same thing about exercise. Physical exercise has temporal benefits. But godliness has eternal benefits. Now we are living in a day of you know it's sort of a craze, this physical exercise. Jogging, aerobic exercises. The other night my wife and I were eating at a restaurant, we looked across the street we saw all these heads bouncing up and down and all. And man, the whole time we were eating they were bouncing. I did admire them. And I didn't eat desert. But this bit of physical fitness, it's a craze, it's swept America. And that's alright. Paul's not really coming down on it. I mean, bodily exercise has some value. Toning up yourself and all,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godliness, exercising yourself in godliness, hey, that you will reap eternal dividends.

지금 바울은 신체적인 운동에 관하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운동은 일시적인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깅, 에어로빅..등 운동이라면 거의 사족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어느날 저녁, 내가 나의 아내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창밖, 길 저 건너편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것 이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있었고 그들은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대단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후식을 먹지 않고 꼭 참았죠. 체력을 단련하는것이 다소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흥미들이 너무 지나쳐 이젠 미국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운동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체력을 높이는것은 나쁘게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과 경건의 연습은 당신에게 영원한 이익 배당을 가져다 줍니다.

Let me tell you what, I used to be about the most physical fit person around. In time, it will get all of you. I mean, you may you know go for it for a time, sure it's great. But ultimately, what was it, the guy that did all the writing on everything you want to know about running, how about that? Died of a heart attack while he was jogging. Mister Fix. Better watch out for that jogging, it's dangerous to your health you know, it will wipe you out.

나도 한 뎀 누구보다도 신체적으로 가장 단련된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겠지요. 한때 그렇게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신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토록 관심을 기울인, 체력단련분야에 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책을 낸 획스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조깅도 좋지만 더 조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There are things that have temporal values, there are things that have eternal value and a man who is wise will engage in those things of eternal value. He will choose the eternal over the temporal, if you're really wise. There are things that can bring you temporal gain. There are things that can bring you eternal gain. The man who is wise would choose the eternal over the temporal. So Paul is telling Timothy the same. Bodily exercise it profits. Timothy was a younger

man, probably keeping in shape. It's fine. But hey, don't neglect the godliness, spiritual exercise. Now again,

세상에는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종사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것 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고 반면에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일시적으로 유익한 것 보다는 영원히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육신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으므로 아마도 신체단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좋아. 그러나, “이보게. 경건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며 영적 단련을 무시해선 안돼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절,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worthy of all acceptance (4: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4:9).

It's again Paul uses this phrase. It's a true saying, and it's worthy that all should accept it. And that is that the spiritual is superior to the physical or the material. That it is better to exercise yourself in spiritual matters than in physical matters. One has only temporary value; the other is of life now and also that which is to come, the eternal. And because of this declaration, Paul said, the superiority of the spiritual over the physical,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worldly view.

바울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진실로 말하는 바는 그것이 받아드릴 가치가 있다는 것이며 영적인 것이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것 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이 육체적인 일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단련이 그저 일시적인 가치를 가졌다면, 영적인 단련은 현재와 닥아올 미래와 영원한 삶에 까지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로 인해,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영적인 삶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we labor and we suffer reproach (4: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4:10),

The world reproaches us. They take an opposite view of this completely. The time in church to them is a waste of time.

(10 절 말씀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영적인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because we trust in the living God, who is the Saviour of all men, specially of those that believe (4:10).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4:10).

Jesus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But only those who believe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Jesus died to redeem the world, but He will only take His treasure out of it. And so He died and is the Saviour of all men, but specifically those who believe. He provided salvation for all men, but not all have received it.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를 믿는자들만 죄의 용서를 받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는 세상에서 단지 보화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므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특별히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These things [Paul said, you should] command and teach. Let no man despise thy youth (4:11-12);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How old was Timothy? Well, he had been with Paul now traveling as a companion for fifteen years. Assuming that he was fifteen years old when he started out with Paul, and that's probably a little young, but let's say that he was only fifteen, he's at least thirty years old now. So he's not just a kid. When Paul said, "Let no man despise your youth," you shouldn't be thinking of some fifteen, sixteen-year-old kid. Timothy is probably thirty or more at this particular point. But when the elders were not really considered elders until they became fifty, there was that tendency to look down upon a younger man as lacking in the wisdom that comes from age and maturity. So "let no man despise your youth,"

당시에 디모데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론 그가 적어도 15 년 동안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선교 여행을 시작할 시점은 그가 아주 어린 소년이었으므로, 그냥 15 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그가 지금은 적어도 30 세는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을 때, 그를 15 세나, 16 세의 소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디모데의 나이는 아마 30 이나 그 이상 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장로들은 남자의 나이가 50 이 넘지 않으면 장로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 젊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한것입니다.

but instead be an example of the believer, in the word, in your manner of life, in love, in the spirit, in faith, and in purity (4:12).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4:12)

Set the example, Timothy. Now what Paul writes to Timothy is good for all of us. We should be examples of what a Christian is. Paul said to the Corinthians, "You are living epistles, known and read of all men" (II Corinthians 3:2). As a Christian, the world is watching you. Be an example of the believer, not unto the believer but of the believer. What a believer should be. This is how a believer should live. This is how a believer should act and react. Be the example of a believer, in your words. The word "conversation" there is an old English word that it is just doesn't mean in you know in your conversing with each other, but in your manner of living, your total manner of living. Let it be as becomes godliness and Christianity. "In your love, the agape, in the spirit, in faith, in purity."

디모데야, 본을 보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글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 본이 되어야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고후 3:2).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믿는자에게 본이 되는것이 아니라 믿는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자가 어떠 해야하며, 믿는자는 이렇게 살아야한다 든가, 믿는자의 행함과 반응이 이러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말하는 것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써 모범이 되는 삶의 시작은 먼저 말의 사용에 있습니다. “대화”라는 단어는 단지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라, 나의 생활의 내면과 삶의 전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건하며 기독교 정신이 되게 합니다. 즉 “사랑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13 절 말씀..

Now till I come, give attendance to reading, to exhortation, and to doctrine (4: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4:13).

So these are the three things that were done in the early church. The reading of the Scriptures. It was a very prominent and common practice in the early church when the Christians gathered together to read the Scriptures. These letters that Paul sent to the churches were to be read to the churches. So he tells Timothy, “Give attendance to the reading of the Scriptures.” There’s value in just the reading of the word of God. But then also the exhortation. As you are then prompting people to act upon the word. “To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James 1:22). Now trust in the Lord. Now give thanks to God. And so the exhorting of the people and then also to the doctrine.

이 세 가지는 초대 교회에서 행하여 졌던것입니다. 성경을 읽는것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모였을 때 흔히 사용하는 아주 뛰어난 의식이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여러 교회에 읽혀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그저 읽는 것 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고자하는 자극을 주기위해 권고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2). 주님을 의지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권고하여 교훈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And neglect not the gift that is in you, which was given to you by prophecy, with the laying on of the hands of the presbytery (4: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4:14).

So Paul here is mentioning how that when Timothy had hands laid upon him by the presbyters, by the elders, they laid hands on Timothy and a prophecy came forth and in the prophecy, Timothy’s ministry was declared, directed. And now Paul tells him, don’t neglect that gift that was given to you by the word of prophecy when the elders laid hands on you.

바울은 언급하기를 디모데가 장로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장로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예언함으로 디모데의 사역을 알렸고 그 사역의 방향도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길 장로들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어진 예언의 말씀과 은사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5,16 절을 봅시다)

Meditate upon these things; give thyself wholly to them; that your profiting may appear to all. Take heed to yourself, and unto the doctrine; continue in them: for in doing this you will both save yourself, and those that hear you (4:15-16).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4:15-16).

Interesting. Take heed to yourself and to the doctrine. Continue in them: for in doing this you not only save yourself, but you save others. It is important that we are reaching out. Important for our own continuance that we go on and that we're pressing on and that we're reaching out. There's really no place for stagnation.

정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가르침에 주의 하십시오. 그것들 가운데 계속하십시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당신 자신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달하기 위한 목표나,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들.. 그래서 현재 진행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침체될 여지가 없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that we all ought to really carefully examine our own hearts. The Bible says, "Now let a man judge himself. For if we will judge ourselves, we will not be judged of God" (I Corinthians 11:28,31). And I think that we should all examine our own hearts and our own present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And as I examine my present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tonight, is there a time in my walk with the Lord that I was more fervent than I am tonight? Is there a time when I was more excited about the things of Jesus than I am tonight? Is there a time when I was more diligent in my serving the Lord than I am tonight? And if in the examining of your heart, your present relationship and your past experiences, if tonight you do not have a deeper, richer, more enthusiastic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n you are in a backslidden state.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의 깊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고전 11:28,31) 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마음과 현재 나와 주□□□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한다고 □□□□□. 내가 오늘 저녁에 □□□□□□□ 나의 현재 관계를 살펴볼때, 오늘 저녁보다 더 뜨겁게 주님과 동행한적이 있는가? 오늘 저녁보다 더 예수님의 일에 관하여 더 흥분된 적이 있었는가? 오늘 저녁보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긴 적이 있는가? 여러분 들의 마음과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점검할때, 만일 오늘 저녁에 주님과 의 관계가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고무적이 아니면 여러분은 퇴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If at any time in your walk with God, your relationship to Him was more richer, more committed than it is tonight, then you are in a backslidden state and you should be very careful about that. The Spirit speaks expressly concerning the last days. That because the iniquity of the world will abound, the love of many is going to wax cold. Are you one of those in which the love is waxing cold? And it should cause us very serious consideration.

만일 언제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늘 이 순간 보다 더 풍성하고 더 헌신 된 날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퇴보해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밝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의 하나는 아니겠지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Jesus said to the church of Ephesus, “I have this against you, because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Now repent, do thy first works over; or else I will remove the candlestick out of his place” (Revelation 2:4-5).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 (계 2:4-5).

There is a story told of a man who was lost in a blizzard. And as he was just blindly walking through the snow, blinded by the blizzard, he was becoming tired and weary until he just stumbled and fell and he just felt, I’ll lie here for a little while. I just don’t have the strength to go on. But as he was lying there, he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what caused him to stumble was a body that was lying there being buried in the snow. And so realizing that there was another person there, he picked him up, felt that the pulse was still there, picked him up and started trudging through the snow, carrying now this other person with a superhuman effort and within fifteen feet, he came to the door of a cabin where he was saved. But he came to a very interesting discovery. And that is, in saving this other person, he in reality saved himself.

나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눈보라 속에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심하게 불어 급기야는 길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히 피곤하고 지쳐서 걸려 넘어져서 내가 더 이상 걸어갈 기력이 없으니 여기서 잠깐만 누워서 쉬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누워 있는 동안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한 한 사람의 몸이 눈에 파 묻혀있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한사람이 있다는것을 깨닫고 그는 그 사람을 일으켜 보니 아직 맥박이 뛰고 있는것을 느꼈고 그는 그 사람을 안아 일으켜서 눈위를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인간적인 노력을 다하여 이 사람을 옮기는데 채 15 피트도 못가서 그들이 구출 받은 초막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재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That’s what Paul is saying to Timothy. “Take heed to yourself and to your doctrine, continuing in them for in saving others, you really save yourself.” You see, you cannot minister unto others without being ministered to by the Lord. I’ve often said the best way to learn is to teach because you have to study so much more in order to be able to give out that in teaching a subject, you really learn the subject thoroughly. And the best way to learn is to teach. The best way to develop is to give. To give out. “Take heed to yourself and to your doctrine.” Continue in them for in saving others, in reaching out to others, you’ll find that it will be your own salvation. It will be your own enrichment. It will be to your own blessing, strengthening in the things of the Lord.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가르치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가르칠수 있도록 되기위하여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하며 당신 자신이 실제로 그 과목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발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과 너의 가르침에 삼가 주의하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계속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라 그리하면 그것이 당신 자신의 구원이 될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요케하며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축복이 되며 주님의 일을 할때 강건케 할것입니다

Father, as Your Holy Spirit has again tonight caused us to look in the mirror, to see the truth, to face the reality of what we are, help us, Lord, not to be so foolish as to just go away and forget what we saw. But Lord, I pray tonight that there might be within our heart that renewed commitment to the things of the Lord. Things of the Spirit. Lord, we know that we are in the last days. Many have departed from the faith. Have been caught up with these seducing spirits, following after the flesh, turning away from the things of God. Being drawn into the things of the world. God, help us in these days to be like You. God, give to us a renewed experience in the Spirit that we might walk in the Spirit and live in the Spirit and be led of the Spirit. A new sense, Lord, of spiritual values. The examination of our priorities, our energies going into those things that are going to fail and those things that are going to crumble and those things that are going to be reduced to ashes while we neglect the eternal. Physically fit but spiritually bankrupt. God, may that not be our case. Renew our hearts in the things of the Spirit, our walk and life with Thee. In Jesus' name, Father, Amen.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임하셔서 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사람인지 보게 하소서 또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분명히 본 것을 잊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사는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의 꾀방과 하나님을 거역하여 육신을 좇아 행하므로 믿음을 떠나 세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주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안에 거하므로 더불어 행하며 그와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를 지니게 하소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에는 실패 할 수 밖에 없으며 산산이 부서져 재가 되어 버릴 것들에 삶의 우선권을 두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쏟게 될 것을 아나이다. 육신은 흥하겠으나 영은 쇠할 것이니.. 우리로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be with you to guide and direct you this week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May you b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hat you might be blameless, walking in love, walking in the things of the Spirit. A witness to the world around. An example of what the believer ought to be. Bringing glory unto God through your commitment to Jesus Christ. God help you in these last days to stand strong. Stand firm. Giving heed to things of the Spirit, the doctrine, saving others, saving yourself. In Jesus' name.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좇아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옷 입고 흠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행하되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세상의 증인으로써, 믿는 자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헌신을 좇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때에 강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구합니다.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의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Timothy 5-6
Tape #C2616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First Timothy chapter five? Paul is a spiritual father to Timothy, Timothy's mentor. He looks upon him as a son; in fact, he calls him his son in the faith. Timothy has been left in Ephesus to oversee the church that Paul established there. While he is in Ephesus, Paul wrote to him this epistle. And in this epistle, he seeks to instruct Timothy in things of the church.

이제 디모데 전서 5장을 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 영적인 아버지였으며 훌륭한 스승 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언제나 아들을 대하듯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 두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교회 의 일들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In a Bible doctrine class in seminary, you would have a subject known as Ecclesiology. And they use the epistles of Thessalonians and Timothy for their Ecclesiology classes. For as Paul said in verse fifteen, how that he has written these things in order that he might know how he ought to behave in the house of the Lord.

신학교에서 성경교리시강 배우는 과목 중에 교회론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보통은 데살로니가서나 디모데전후서를 사용합니다. 15 절에서도 바울이 말한것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릴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쓴것입니다.

So as we get to chapter five, he deals first of all with Timothy's behavior towards the elders, men, the younger men, the elder women, and the younger women.

이제 5 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교회 안의 사람들, 즉, 장로들이나 남자들, 또 젊은 남자들과 늙은 여인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Rebuke not an elder (5: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5:1),

Timothy was a younger man. He told him don't let any man despise thy youth. And here Paul is telling him not to rebuke an elder.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벌써 디모데에게 어느 누구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늙은 이를 꾸짖지 말라고 권합니다.

but entreat him as a father (5:1);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5:1);

Looking upon him as a father and talk to him as you would a father, entreat him as you would a father. Older people, I think, naturally resent being told by younger people what they ought to do or being rebuked by younger people. So Paul said, Don't rebuke them, entreat him as a father.

그들을 대할 때 아버지께 하듯 하고, 말할 때도 그리하며, 뭔가를 부탁할 때도 아버지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젊은 사람들이 할일을 말하거나 젊은 사람들로 부터 책망받는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께 하듯하라고 합니다.

and the younger men as brothers (5:1);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5:1);

There is a right way and a wrong way of calling a person's attention to a failure in their walk. The wrong way engenders strife, resentment. The way I present it to a person can create an animosity. Be careful that we don't build walls and barriers by the way in which we seek to correct someone. In dealing with the younger men, Paul said entreat them like a brother; treat the older men like fathers.

어긋난 길로 행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데 옳은 방법과 틀린 방법이 있습니다. 틀린 방법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개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적개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방법이 잘못되어 장벽을 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젊은 사람을 다룰때에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이들에게는 아버지께 하듯 하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The elder women as mothers; and the younger as sisters, with all purity (5:2).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5:2).

Timothy was evidently unmarried. Paul tells him in another place to flee youthful lusts. Treat the younger women like sisters. And then, 젊은 여성들을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디모데가 아직 미혼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부탁하기를, 3 절에

Honor widows that are widows indeed (5:3).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5:3).

And now Paul seeks to define for Timothy who the true widows are.

이제 바울은 참된 과부에 대한 바른 정의를 제시합니다.

If any widow have children or grandchildren (5: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5:4)

The word “nephew” should be translated “grandchildren,”

여기서 조카는 손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역주: 영어 흠정역). 계속해서 4 절.

let them learn first to show piety at home, and to requite their parents: for that is good and acceptable before God (5:4).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4).

So the first responsibility and Paul will repeat this again, for the welfare and the care of the widows lies upon the children and the grandchildren. Now the church did take upon itself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the needy within the body. It was a part of the ministry of the church.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적인 책임이며 이 책임이 자손들과 손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 보는 책임을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You remember in Acts chapter six, where the Grecians came to the apostles and they complained that their widows were not being dealt with as bountifully as were the Hellenists, as were the Hebrews at the administration of the church’s welfare program. And so there was a taking care of the widows by the church. But Paul seeks to define who are really qualified to come under the care of the church. If a widow had children or grandchildren, then it was their primary and first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ir needs.

사도행전 6 장을 살펴보면, 그리스계통의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자기네 과부들이 본토 유대인 과부들 같이 풍성하게 배급 받지 못한 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때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행정을 유대인들이 행정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돌보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들이 있을 경우엔, 그들이야말로 자기의 어머니/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자녀들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었습니다. 5 절 말씀.

Now she that is a widow indeed, and desolate who’s trusting in God, and is continuing in supplications and prayers night and day (5: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5:5),

Now these are the ones that the church is to take care of. One who is a “widow indeed, and desolate,” And that is really the qualification for those widows that were to be taken care of by the church. They really were given a ministry within the church, and the ministry within the church was the ministry of intercessory prayer. And so they “trusted in God, and were continuing in supplications and prayers night and day” for the church and the work of the church.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과부이며 버려진 사람” 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과부의 갖춰야 할 참된 자격입니다.

교회안에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는데 그것은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How grateful we are for those prayers of the older women within the church. I really feel a tremendous loss here at Calvary with the death of many of these older women who held the church up in prayer continually. We had a blessed group of older women, many of them widows, who have now gone to be with the Lord, but who had this special ministry of prayer and supplication night and day.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노부인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나는 교회안에서 계속하여 기도모임을 가졌던 많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는것은 여기 갈보리 채플에게 정말 대단한 손실이라고 느낍니다. 우리에게 노부인들의 축복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부이며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또 남은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를 주야로 하는 이 특별한 사역을 계속합니다.

Paul said in contrast to those,

6 절에는 정반대로 비교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Those that are living in pleasure are dead while they still live (5:6)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5:6)

I think that one of the most reprehensible things going is a dirty old woman. Now, I think that dirty old men are bad, too. But you know, there's something about an older lady that there should have developed that softness and that beauty. And you see some beautiful older lady who is a grandmotherly type and then you hear her talk and she's using profanity and all, and there's just something that doesn't set right. It's just not there. You know, I think that you usually think of the older women as mothers and, the way that some of them talk or act, it's just really reprehensible. And one of the saddest things is to see in Las Vegas these old ladies standing there at these one-armed bandits just working those things all day long, with a cigarette hanging out of their mouth, you know. I mean, that just isn't in my mind the picture of what old ladies ought to be doing.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책망 받을만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나이든 여자가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든 남자도 말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성숙하게 가꾼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때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을 갖춘 노부인을 만날 때도 있는데, 어찌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불경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격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엔 뭔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나이든 여성을 생각할 때는 보통 어머니를 연상하게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비난 받을것 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것 중의 한가지는 라스베가스에서 이 노인네들이 입에 담배를 물고 도박기 (Slot Machine) 앞에 서서 하루 종일 도박을 하는것입니다.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There is a beauty that comes to that older woman who has been walking with the Lord. There's almost sacredness. I love to just sit down and share with those who have been walking with the Lord through the years. And from their mouth there pours the richness of God's love and God's goodness through the years. Widows indeed.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이든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의 신성한 아름다움이지요. 나는 지난 여러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온 그 분들과 함께 앉아 삶을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과 그 선하심에 관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과부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But those that are living for pleasure, those poor gals in Vegas, they're dead, Paul said, while they're still alive. I mean, they may still be breathing but man, they're dead and so is anybody who lives for pleasure, spiritually dead though they still may be alive.

그러나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라스 베가스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성경은 그들이 비록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기때문에 호홉하며 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7 절과 8 절 말씀.

And these things [Paul said] give in charge, that they may be blameless. For if any provide not for his own, especially those of his own house, h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infidel (5:7-8).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5:7-8).

That is, if they do not take care of the members of their own family, if they do not take care of the needs of those of their own family, really they have denied the faith. Honor thy father and mother, the Scriptures said. And you've denied the faith if you refuse to take care of your elderly parents and grandparents.

이 말씀 그대로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필요한 것도 도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나 조부모를 돌아보는 것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버린것입니다. 9 절.

Let not a widow be taken into the number under sixty years of age, having been the wife of one man (5: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5:9),

Now this special ministry for widows, it seemed to be a ministry that was set aside in the church, and it was something that was an honored position. It was more or less a lifetime commitment by the older women to really give themselves to the burden of prayer and the prayer ministry for the church, and there was almost an office for the widows of the ministry of prayer. They were supported by the church. They were put on the church's payroll and their duty was just to continue night and day in prayer and supplication for the church. And I'll tell you, the church would be wise to hire the widows to do that, be profited by that kind of a ministry. A lot more than probably some of these young men that we put on staff who don't know quite yet what

they're doing. If we had some widows that we put on staff just to pray for the church, a valuable asset profited. Any of you widows looking for a job?

교회 안에서 미망인들을 위한 특별사역은 짓혀 놓은것 같이보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구별되고 존경 받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이든 여성들 자신들이 거의 평생을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사역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역이었으므로 그들의 기도 사역을 위한 처소까지 마련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교회를 위한 기도와 간구를 밤낮 계속하는것이 그들의 의무 였으며 그들은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가 그들을 고용한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 사역을 맡게 됨으로 인해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의 사역이 이 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사역으로 미망인들을 일군으로 고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가치있는 자산이 될것입니다. 이 중에 이런 직업을 찾는 미망인들이 계십니까?

So let the widow not be taken into the number; that is, the special ministry group who are cared for by the church, who are under sixty years of age, having been the wife of one husband who are,

이것이 교회에서 돌보는 모임인 만큼 미망인들의 명부에 올린 사람은 60 세가 넘어야 하며 한 남편의 아내 이었던 자라야 합니다.

Well reported for their good works (5: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5:10)

These are the qualifications. They've got to have a good report that they have been doing good works.

그들이 살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는것이 그들의 선발자격 조건이 되었습니다. (10 절 말씀 계속합니다.)

if she has brought up children, if she has lodged strangers, if she has washed the saints' feet, if she has relieved the afflicted, if she has diligently followed every good work (5:10).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5:10).

Great qualifications. Then there was the special area of ministry for them. But Paul said the younger widows, don't take them into this special company.

정말 적합한 자격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역의 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젊은 과부들은 이 특정한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11 절 12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Refuse them: for when they have begun to wax wanton against Christ, they will marry; Having [not damnation, but condemnation], because they have cast off their first faith (5:11-12).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5:11-12).

So Paul says that the younger widows should marry. If they are brought into this special company in ministry within the church, and then should leave that, fall in love and so forth, having made that commitment to Christ, having put the hand to the plough; turning back, they would feel condemned. Not good. It is better that they just go ahead and marry and bear children and all and not be brought into this special company of ministering widows within the church. For if the church is taking care of them, 바울이 주장하는 바,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특별한 사역에 위탁했을 때,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더 온전히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정진하기 위해 그 관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비난을 받는 것처럼 느끼곤 했지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시 그 사역에 돌아오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They're apt to be just going around from house to house becoming idle, and tattlers and busybodies, speaking about things that they should not be speaking. So better that they marry, have the responsibility of bearing their children, guiding their houses, and then gives no occasion for the enemy to speak reproachfully. For [he said] some are already turned aside after Satan. Now if any man or woman that believes has widows, let them take care of them, and not the church be charged; that they may take care of them that are widows indeed. Let the elders that rule well be counted worthy of double honour, especially they who labour in word and doctrine (5:13-17).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 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망령된 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훼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Now this indicates that there were other ministries for the older men besides just teaching the word and teaching doctrine, but these older men, these older saints accounted worthy of double honor. Again, even as the older women are a tremendous blessing to the church, so those older men who have walked with the Lord for years can be a tremendous blessing to the church. How I thank God for the ministry of the older men in this church. The blessing that they are, the ministry that they have and they should be accounted worthy of double honor. 이 부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당시에 나이든 남자들을 위해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다른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든 남자들은 배나 더 경건하고 덕망 있는 자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든 노부인들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같이, 나이든 남자 어른들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 그 자체였으며 그들의 배나 존경 받는 삶은 그 자체가 사역이 되었습니다.

For the scripture says, You are not to muzzle the ox that treads out the corn. And, The labourer is worthy of his hire (5:18). 성경에 일렸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So the double honor to the older men. 말씀을 가르치는 나이든 남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Then, 그리고

And against an elder receive not an accusation, unless there be at least two or three witnesses (5:19).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Don't take one person's word for it; let there be two or three witnesses.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의 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Them that sin rebuke before all, that others may also fear (5: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Now I'm afraid that if the church practiced this open public rebuke of the sinners, it would create, no doubt, a fear but it might also create an empty church. You remember when the woman was brought to Jesus, taken in the act of adultery and they said, Our law says stone her, what do you say? And Jesus said, Let him who is without sin cast the first stone. And He began to write on the ground; it doesn't tell us what, but I feel certain that He was writing the names of the individuals and the sins they were guilty of. And it says they began to leave from the eldest to the youngest until there was none left. And if there was an open rebuke for sin, and we started going down naming everybody and naming the sins, it would create fear, I'm sure, within the church. 만일 교회가 범죄한 이들에 대해 공중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교회를 금새 텅텅 비게 만들 것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야 하는데 당신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주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 각자의 이름을 나열하시며 또 그들의 숨겨둔 죄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늙은 이부터 젊은 이까지 모두 떠나기 시작해 아무도 그 자리에 남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그곳에서 공중재판이 열렸다면, 그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죄상들을 낱낱이 기록함으로 그들로 두렵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얘기겠지요.

When I was a young man there was a man that I admired very much. I admired his ministry, Dr. Claire Britain. He was a medical doctor as well as a minister. And at a summer camp, I listened to him one year and he was saying that he could look into a young person's eyes, and the eyes are so revealing. They tell everything that the young person is guilty of; it's all there in their eyes. Man, I was afraid to look at him. Didn't want him to see everything that was there.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클레어 브리튼 박사라는 분입니다. 나는 정말 그의 사역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의사이며 동시에 사역자였습니다. 한번은 여름 캠프 때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그는 젊은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들의 눈을 통해 어떤 죄책감이나 또 드러나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때, 혹시 그가 나와 눈이 마주쳐서 내 모든 것을 알아 버릴까 봐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Now I charge thee [Paul said] before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elect angels, that you observe these things without preferring one before another, do nothing by partiality (5: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We are all of us children of God. And as such, each of you are equally important to God. There are no second-class heavenly citizens. To you, I mean, to Jesus you are as important as anybody else, and it is the church's business to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and to show love, appreciation, honor, respect, and all, to everyone without partiality. We're not to say, Hey, he's got big bucks, you know, treat him good, and the church is guilty of sin before God. Paul is pretty straight with it. "I charge you before God and before Jesus Christ and before the elect angels." I mean, it's a heavy-duty charge. Don't show partiality, treat everyone alike.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다. 천국시민에게는 두 번째라는 계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 누구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특별한 것이 없이 존경과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좇는 교회의 당연한 일입니다.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더 잘 우대해야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책망 받을 일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막강한 책임입니다. 사람에 대해 절대로 차별을 보이거나 편견을 보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How opposite that is from the natural tendency, if someone is a professional person; Oh, he's a doctor. Oh, he's a chief of police. Oh, he's a lawyer, or something, and oh, he's very wealthy, you know. And there is that tendency to, oh, you know, show little favors and oh, why don't you come sit at our table, you know. 허긴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와,, 그는 의사야,, 아,, 이 사람은 경찰 국장이라, 이 사람은 변호사고,, 또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부자고,, 그럼 당장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호의를 보이며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요,, 아,, 선생님 여기 좀 앉으시지요..

James also wrote saying have no respect of persons.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Romans 2:11). And we're not to have respect of persons. James says, Hey, someone comes in, you know, and they're well-dressed and you know, wearing diamonds and all, he says, you say, Hey, come on down, take this nice seat down here. Some guy comes in rags, you say, Hey, sit in the corner, man. And he said that's wrong. You see, in the eyes of the Lord we are all the same. God doesn't look upon me with any greater favor or honor or anything than He looks upon you. It is a tragic thing that the church has set up certain men that we say, Oh well, you know, look how close he is to God. We are equally close to God. We are equally in God's favor. God is no respecter of man's person. And we are not to be, either. So doing nothing by partiality.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도 로마서 2 장 11 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야,,저기 옷을 잘 차려 있는 사람이 오는구나,, 다이아몬드며 온갖 보석을 다 걸쳤구나,, 아,, 선생님 여기 편안한 곳으로 앉으시지요.' 그런데,, 저기 또 한 사람이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오네, 에이, 저 사람은 저 구석에 앉혀라,.. '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병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 아,,저것 봐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고 민감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똑같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똑같이 사랑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마십시오.

Now lay hands suddenly on no man (5: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What does that mean? Don't come up and say, hey, you know, lay hands on me suddenly and shock. No, he's talking now in the laying on of hands for the ordaining of a person for a ministry within the body of Christ. Let a person sort of prove themselves, don't be quick to ordain people to a particular task. Oh, glad to see you here this morning. Here, take this Sunday school book; we need a teacher for our sixth grade class, you know. A lot of churches feel that you got to lock the person into a job, you know, get them involved, you know, and hold them. But Paul said, "Don't lay hands on." You know, it's a lot easier to get people in than it is to get them out. And a tragic thing has taken --has happened in the church, and without really learning the individual, ordaining them for particular tasks or particular job, and then you can rule that quickness of judgment for a long time. So don't lay hands on any man suddenly.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안수하거나 해서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몸의 사역을 위해 아무 사람이나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임명할 때는 스스로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깊은 생각 없이 특정한 임무를 맡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만나니 참 반갑군요. 여기 주일학교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6학년 선생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길 ‘자꾸 참여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야지.. 개인이 직임을 맡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냐,’ 하며 반발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내 모는 것보다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극이 현재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훈련이 없이 특정한 일을 맡기고 직임을 맡기는 등,, 장기적인 일을 순식간의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and neither be a partaker of other men's sins: keep yourself pure (5:22).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Hey, that's not just good exhortation for Timothy; that's good for all of us. Keep ourselves pure. Now this is for Timothy. 이 말은 오직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군요. 23 절.

Drink no longer water, but use a little wine for thy stomach's sake and thine oft infirmities (5: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5:23).

Most of the people in that culture and in that day did drink wine. The wine that they drank was a mixture of water and wine, three parts of water, two parts of wine. And it was as common, as water as far as a drink was concerned, because in many of the areas the water was polluted. It would be like someone going down to Mexico and writing back and saying, Oh, man, I've got, you know, Montezuma's revenge, you know. And you know, so you would write to

them and say, Hey, you better drink cokes or something, you know, instead of that water. You know, drink a little wine for your stomach's sake, for this dysentery and so forth. And that's basically what Paul is suggesting to Timothy.

그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물 3 컵과 포도주 2 컵의 비율로 혼합한 것입니다. 당시의 많은 지역의 물들이 오염이 되어 있었으므로 물 대신 이렇게 마시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멕시코에 내려가서 편지로 하소연하기를 내가 멕시코 설사에 걸렸는데 어찌면 좋겠는가.. 하고 물으면 누구라도 대답하기를 ‘물 대신에 콜라를 마셔보지 그래...’ 할 것입니다. 위장이 좋지 않을 때나 이질로 설사가 날 때, 혹은 속이 불편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테에게 아주 상식적인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Now this is to me quite interesting, however. In that I have no doubt that of those men in the New Testament who ha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in operation in their life, the gift of miracles, healings and all, certainly Paul ranks with the chiefest of the apostles in the ministry gifts of the Spirit. Paul had many miracles wrought through his ministry. Paul had, I'm sure, the gift of faith, the gift of working of miracles, gifts of healing working through his life. And yet here is his son in the faith, Timothy.

여하간 이것이 내겐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는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적과 치유의 은사를 활용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성령의 은사의 사역에서는 사도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사도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기는 사도 바울도 그의 생활을 통해 믿음의 은사와 이적을 베푸는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w when Paul was in Ephesus, they took his aprons and his sweatbands and they laid them on the sick people and they were healed. Why didn't Paul just anoint the handkerchief and send it to Timothy and say, Sleep on this? Now I am certain that Paul had prayed for Timothy's stomach disorders. And there are indications that Timothy was a very feeble person and was a sickly person, yet a companion of Paul. The question, why didn't God heal Timothy? Why was he allowed to be sickly? Why would Paul write sort of a medical, physical prescription for his ailment rather than just pray for his healing? I am convinced that Paul did pray for Timothy's healing. But nonetheless, Timothy wasn't healed.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들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손수건에 안수하여 디모테한테 보내며 그 위에서 누워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바울이 디모테의 위장병을 위해 기도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 말씀은 바울과 동역하기 전의, 디모테는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었으며 병을 잘 앓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왜 디모테를 고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왜 그가 아프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바울은 그가 낫도록 기도하는 대신 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신체적인 처방을 썼을까요? 바울은 정말 디모테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낫지 않았습니다.

I believe the reason why is that we would not be caught up in that kind of heresy that we'd say, Well, brother, you're still sick because there's some sin in your life. Or you're still sick because you just don't have enough faith. Or you're sick because you have this personal problem or something of that nature. To keep us from that kind of foolish, unscriptural speculation, we have the case of Timothy, a close associate, companion, son of Paul in the faith who Paul is giving some just, pure advice to, from a physical level for his oft sicknesses rather than having a divine touch of God and a healing upon his body.

내가 믿기엔 그 이유는 우리가 “ 형제여, 당신이 이렇게 낫지 않고 계속 아픈 이유는 당신 삶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신이 아직도 아픈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당신이 아직 아픈것은 당신에게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그런 성질의 일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단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어리석고 비 성경적인 추측을 하지 않도록 막기위하여 우리는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였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 만지심으로 고치는것 보다 그의 자주 앓는 병에 대한 그의 체질의 수준에서 부터 바르고 순수한 충고를해주고 있습니다.

God does not heal in every case. And in those cases where God doesn't heal, God has a purpose for not healing. It is not the lack of faith. It is not something wrong in the life of the individual. There is something within those eternal purposes of God that we cannot, do not, and will not understand. And I am thoroughly opposed to that kind of teaching that if you will follow this formula, you will be healed, and then that person who has this chronic illness feels constantly guilt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something wrong with my relationship with God. Why aren't I healed you know, what's wrong with me? And actually you are kicking a person when they are down if you lay some kind of heavy trip on them that way. Oh, brother, you know, there's just got to be something wrong, you know.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it would happen to you, too.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막론하고 병을 다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병을 치유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병을 고치시지 않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결여된 것도 아니요, 또 개인적인 삶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미래에도 이해할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나는 몇몇 사람들이 “당신이 이 방식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당신은 분명히 치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뭔가 잘못되었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된것이 분명해. 나는 왜 치유가 안되는 거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그리고는 당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른 사람이 아파 누웠을때 당신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무거운 부담을 주어 그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오 형제여, 당신도 알다시피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강해진다면 이 병이 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서 말입니다.

There's an interesting scripture concerning Jesus that we do not understand in our modern culture today. It said concerning Jesus, “A bruised reed he would not break” (Isaiah 42:3). To put that into a modern vernacular would be; He would not kick a man who is down. That's what meant by “a bruised reed he would not break.” He wouldn't kick a man when he's down.

오늘날의 현대 문명에서 사는 우리들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에 관한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사 42:3).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어 말하면, “ 그는 그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발길로 차지 않는다” 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는 뜻입니다. 그는 넘어진 사람을 발길로 차지 않으십니다.

Paul himself had an affliction, which he prayed three times that God would deliver him from it. God finally answered, but not by delivering him but by just giving him the grace to endure it, declaring,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strength will be made perfect in your weakness” (2 Corinthians 12:9). So let us not be guilty of judging wrongly. Or of laying some heavy burden upon someone who is already burdened because of their illnesses, because of their weaknesses. Let us just recognize that God doesn’t heal in every case. Now God does heal in some cases, He doesn’t heal in other cases. Why He heals some and does not heal others is totally bound up in the sovereignty of God. As the Holy Spirit divides to each man severally as He wills of the gifts of the Spirit.

바울 자신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옮겨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에게서 그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신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수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그러니 우리도 잘못 판단하는것이나, 그들의 질병으로 인해 이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우는것이나, 또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의 질병을 다 고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엔 치료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는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은사에 관하여도 그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So Paul is encouraging Timothy for the stomach problem just drink a little wine. Don’t drink that water anymore, dangerous stuff. I understand when they come to the United States from Mexico they always warn them, now don’t drink the water. It’s because we have different amoebas here than they do down there, and they get the same kind of problems from our water that we get from theirs. It’s just that they become immuned to those amoebas in their water as we have become immuned to the amoebas. Hey, we don’t have the purest water in the world, believe me.

그래서 바울은 디모테에게 그의 위장병을 위해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 물은 오염되어서 위험하니, 그만 마셔라. 나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미국 물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경고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물은 그들이 살던 곳과 다른 성분의 아메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들의 물을 마셨을 때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 물의 아메바에 면역성이 생겼듯이 그들도 그들의 물의 아메바에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한 물은 없습니다.

Now he said,

24 절 25 절 말씀입니다.

Some men's sins are open beforehand, going before to judgment; and some men they follow after. Likewise also the good works of some are manifest beforehand; and they that are otherwise cannot be hid (5:24–25).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5:24-25).

In other words, before you meet the person, often you hear about them and their sins have gone before them. People have told you, Oh hey, he's done this and he's done that and all. Before he ever comes and you meet him or he confesses whatever, you've already heard of what he has done. That happens so many times. A person comes to confess something and and you've already heard it from two or three persons. And the same thing with a person's good works, they also go before them. Or people have shared with you, Oh, he's really, you know, outstanding and this, that or the other, and you hear of them before you meet them. Their works precede them. They're manifest beforehand, cannot be hid.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해 어떤 말을 자주 듣게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앞서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또 저런 일도 저질렀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또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직접 고백을 듣기도 전에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고백하는 데, 당신은 이 얘기를 벌써 서너 번 들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또 좋은 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장본인보다 먼저 정보를 주며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구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능력이 많아요”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아 버리죠. 그들의 선행이 앞서 가고 감추어 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지요.

Chapter 6

Now Paul turns to the subject of servants in chapter six.

이제 바울은 종들에 대한 주제로 제 6 장을 시작합니다.

Let as many servants as are under the yoke (6:1)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6:1)

That is, to a master.

이것은 주인에게 행할 목록입니다.

count their own masters worthy of all honour (6:1),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찌니 (6:1),

Now this is actually the word “slave.” And in that day, slavery was a very common practice. And Paul said, If you are a slave, then count your master worthy of all honor or respect.

이것은 실제로 “노예”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는 아주 공공연하게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만일 네가 노예라면 너의 주인을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 절 말씀)

that the name of God and his doctrine be not blasphemed (6:1).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1).

In our day and age, it is so important for us as Christians to be above reproach in our work and in our work habits, because people are expecting more from you as a Christian than they expect from a normal person. It may be that everyone is fudging on his breaktime and is, you know, taking a half-hour for break when fifteen minutes is allowed. If you're a Christian, you should take fifteen minutes, though the others are taking a half-hour. Now if the other is so, you're taking a half-hour and the others are taking fifteen minutes, you say, well, you know, I'm a Christian; they'll say, Hey, supposed to be a Christian, look at that. And many times by our actions and by our attitudes, we cause the name of Jesus to be blasphemed. And that's tragic.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일하는 습성에 있어 나무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인인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5분으로 정해져 있는 휴식시간에 30분을 쉬며 눈 속임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이라면 다른 이들이 30분을 쉴 동안에 여러분은 정확히 휴식 시간을 15분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어느 날 정확히 15분의 휴식시간을 지키는데 우리가 30분을 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다면, ‘여봐, 그리스도인 다워야지, 저것 좀봐’ 라고 말할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극이지요.

That was the thing that Nathan nailed David with, after David's experience with Bathsheba. He had said to David, "David, you've caused the enemies of God to blaspheme" (2 Samuel 12:14). You've given occasion to the enemies of God to lay blame against Christianity or against Jesus Christ because of your slovenliness. More is expected of you because you are a Christian. Produce more, Paul is saying.

다윗이 밋세바와 범죄한 후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다윗 왕이여, 여호와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이다” (삼하 12:14)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여금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기회를 주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할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여 생산성을 높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If you have a master who is a believer, then don't despise them, because that they are your brothers; but rather service to them, because they are faithful and beloved, partakers of the same benefit. These things [Paul said] teach and exhort (6:2).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6:2).

So basically the servant was as a Christian, to be exemplary in his service, whether he had an unbelieving or a believing master. **Now if you had a believing master, he may sort of resent the fact that he still is requiring this of me.** After all, we're brothers in Christ and we are believers, you know. But Paul is just exhorting them to have the respect and honor of their masters. **?????????**

그리스도인인 종은 기본적으로 자기 상전이 믿는 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합니다. 만일 어떤 종이 믿는 상전을 모시고 있다면, 그는 아마 그 주인이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상전을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3 절 말씀.

If any man teach otherwise, and does not consent to wholesome words, even the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o the doctrine which is according to godliness (6: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6:3);

Paul uses this word “godliness” some six times; I believe it is in this epistle. He talks a lot about godliness.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you remember last Sunday’s message.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I Timothy 3:16), and all. Now again, “If someone teaches otherwise, and does not consent to the wholesome words, even the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o the doctrine which is according to godliness.” And that’s the purpose that we might be like God, that we might be godly in our actions.

바울은 이 서신에서 ‘경건’ 이란 단어를 무려 6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에 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딤후전 3:16), 다시 3 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과 우리의 행실이 경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That person who is teaching otherwise,

가르치는 자에 대해 그 밖의 다른점은 (4,5 절 말씀)

Is proud, he knows nothing, but dotting about questions and strifes of words, whereof comes envy, strife, railings, and evil surmisings, the perverse disputings of men of corrupt minds, and destitute of the truth (6:4-5),

저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6:4-5),

And what is their main thesis?

무엇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까요?

supposing that godliness is a way to gain withdraw yourself from such a person (6:5):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5):

Paul said this is one of the worst heresies.

바울은 이것이 가장 나쁜 이단들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You see, here is a slave who is saying, Hey, I've a godly master so you know he ought to make it easier on me. It's a way for me to gain. Here is a master who's saying, Oh, I have a godly servant, you know, I can trust him and I can put him in a position of trust because he is godly. I can use that for my gain, for my benefit.

여기 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가 말하기를 “ 우리 주인은 아주 독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일들을 좀 가볍게 해야지. 그게 나를 돕는 거지.” 그런데 그 주인이 또 말합니다. “ 내 노예는 아주 독실한 사람이야. 그는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 하니까 중요한 자리에 앉힌 거야. 나는 그것을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거야.”

So many people are following this heresy.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advocating this heresy. You know, if you want to be rich, if you want to drive a Cadillac, just receive the Lord and have enough faith. Go out in faith, put the down payment on the thing, put a deposit on it, you know. Believe and trust the Lord to make the payments. Godliness is a way for prosperity. God wants you to have the best. You're the King's kids and God wants you to live like the King's kid. Go out and go for it. Indulge your lust. God wants you to have everything. Godliness is a way to gain.

많은 이들이 이런 이단적인 사고를 따릅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일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또는 만일 여러분이 고급차를 타고 싶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보증금을 내고, 믿음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월부금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경건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일 좋은것을 갖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이니 당연히 왕의 자녀답게 사는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은 얻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Perverse disputings of men of corrupt minds. They're destitute of the truth, from such withdraw yourself.” The truth is,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가 없어 비뚤어진 언쟁을 하는자들을 떠나라.” 참 진리는..

godliness with contentment that's great gain (6:6).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6:6).

That's really being rich. The person who never has enough, who is always wanting more, is not really rich. I know a man who has over a hundred and fifty million dollars, over a hundred million deposited in certificates of deposit in the bank. He keeps that for the acquisition of new breweries that might come on the market. This man works sixteen hours a day, sixteen to eighteen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never takes a day off, never takes a vacation; drives himself. He's not rich, he's poor, that's not really being rich. What is really rich? The man who is godly and is content, a man who doesn't have a need. That's the man who is rich; he's got everything he wants. That's real riches, that contentment with what I have.

그것이 참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진것이 부족하여 항상 조금만 더 원하는 사람은 부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남자는 은행에 1억 5,000 만불이 예금되어 있고 증권에 1억을 넣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양조장이 시장에 나오면 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16-18 시간씩 일하고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합니다. 결근도 없고 휴가도 없이 운전도 손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것이 부요한 것입니까? 경건하고 자족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것을 모두 가진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것으로 만족하는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And so Paul speaks about contentment. He said,

그래서 바울은 자족함에 대해 말하기를, (7 절 말씀입니다.)

We brought nothing into this world, and it is certain we're not going to carry anything out (6: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6:7).

When you die, you're going to do just exactly what everyone before you has done; you're going to leave everything here. You're not going to take a cent with you. "Naked I came into the world, naked I'm going out of the world" (Job 1:21). I brought nothing in; I'm going to carry nothing out.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때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행했던 것과 똑 같이 하실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남겨 놓고 가실것입니다. 단돈 일전도 가지고 가지지 않을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 온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욥 1:21).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것입니다.

And [therefore] having food and raiment let us be therewith content (6: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8).

How many people have brought themselves into really great poverty because they're never satisfied with what they have? Always wanting something more. And that discontentment has brought many people to bankruptcy. "Having food or raiment be content." You have food, you have clothes, praise the Lord! Be content.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들 자신을 큰 가난에 몰아넣는지요?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좀 더 가지기 원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것과 입을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먹을것이 있고 옷이 있거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족 하십시오.

9 절 말씀.

But they that will be rich (6:9)

부하러 하는 자들은 (6:9)

If this is your goal, if this is your drive, if this is your purpose in life, “they that will be rich” will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면,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은 부하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fall into temptations and a snare, and into many foolish and hurtful lusts or desires, which drown men in destruction and perdition (6:9).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6:9).

The wealthy person has far many more temptations than I have. Because of his wealth, the opportunities are there of doing so many more things. I don't have to worry about a lot of things because I don't have the money to do them; I'm not tempted by them, I can't afford them. But a wealthy person runs into all kinds of temptations that you never dreamed about. So “they that will be rich will fall into these snares, the temptations, many foolish, hurtful desires, which just drown men in destruction.”

부자들은 엄청난 재산이 있어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기회를 갖지만 실상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것들을 할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니 유혹을 받지도 않지요. 하지만 부자들은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에 빠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분명히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것이라” 했습니다.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6:10):

That's quite a statement. Notice, he does not say,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And you've often heard it quoted that way, haven't you? That's not what he says. Money is not evil; it's not good. It all depends on your attitude towards money. And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보십시오. 그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가 말하길 그냥 단순히 “ 돈은 모든 악의 뿌리”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명백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말한 것은 돈이 악이다 라거나 혹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입니다.”

James said “from whence comes the fightings and the wars” (James 4:1). Does it come from man’s own lust, the desires? Love of money, the greed, behind all of the wars and strivings and jealousies and all within the world, the love of money, the root of all evil. And so you can take the evil and you can trace it all back and it comes back to greed, the love of money. And the world is in the mess that it is today because of greed.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약 4:1) 고 말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 욕망을 좇아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온 세상의 여기 저기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시기심의 배후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어디서 왔는지 잘 추적해 보면 돈을 사랑하는 탐욕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이 오늘날의 이 상태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It is not that we are running out of natural resources. It isn’t that the world isn’t big enough to accommodate the population. It isn’t that we could not feed everybody. The problem with the world is how men are spending the money. Last year throughout the world, there was over one trillion dollars spent for the defense budgets in the nations of the world, for buying war equipment to destroy other men; over one trillion dollars. Had we spent one trillion dollars last year in agricultural development, there would not be a single hungry person on the face of the earth; instead of the fact, that two-thirds of the world is living on starvation diets tonight, not enough food.

그것은 천연 자원들이 고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지구가 넘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줄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엔 전세계적으로 1 조원이 넘는 돈을 모든 나라에서 국방비로 소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킬 무기를 사느라고 1 조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한 돈을 만일 농업발전에 투자했다면 이 세상에 아마도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3 분의 2 가 오늘 이 시각에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It isn’t that we can’t produce enough food, it isn’t that there isn’t enough arable ground and so forth, it’s a misdirection; the greed of man. It’s more profitable to make bombs than to plant corn. And so the greed of man, the love of money; that’s the root of the evil. If it weren’t for the love of money, we would have no drug problems today. What’s behind the drug problem? What’s behind all of these drug smuggling and so forth? What’s behind it all? The love of money. If we did not have the love of money, there would be no prostitution today. Were it not for the love of money, think of how many evils would be eliminated from our earth.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우리가 양식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또 경작할 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들의 그릇된 정책과 인가의 탐욕 때문입니다. 폭탄을 만드는 것이 옥수수를 심는 것 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 그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만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마약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마약 문제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밀반입해서 들어오는 이 마약의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모든것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없다면 오늘날 창녀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제거할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which while some have coveted after, they have er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through with many sorrows (6:10).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6:10).

An interesting observation because the lie that we believe is just the opposite. The common deception is if I just had enough money, I would be happy. Paul is saying that these who have achieved, turning from the truth, erring from the truth, have brought themselves into great sorrows. And interestingly enough, the most wealthy men I know are also at the same time the most miserable men that I know. Interesting, isn't it?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거짓말들이 사실과 전혀 반대라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돈만 충분히 있으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속는 기만입니다. 바울은, 크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끌어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장 많이 재산을 가진 부자들입니다. 이것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I have them invite me out to lunch. They pour out their stories of woe, misery, loneliness. One fellow was sharing with me how he didn't know if anybody truly loved him or not. All of these women throwing themselves at him, but he said I don't know if they really love me or not. He's married three of them so far and they've all taken him for a pretty good ride. And now he's in a real dilemma. Since the last one left and made out pretty well in the courts, there's a lot of others who are thinking, My, I'd like to retire, too. Live with a guy for six months and retire, you know. He said, I don't know if they really love me or not. Miserable. Doesn't know true love. How can I know if they really love me? Sad, isn't it? The guy's so wealthy. He doesn't know if anybody really loves him or not or they're just after him for his bucks. Are they friendly just because he has bucks? Are they hoping to cash in on his bankroll? Poor fellow.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점심에 초대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자신들의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다 쏟아 놓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날, 자신의 친구들이 과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 했습니다. 과거 자기 품에 안기던 많은 여자들이 정말 사랑 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가졌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중 세 여자들과 그는 결혼했지만 결과는 그 세 사람이 다 이 친구에게서 많은 돈을 뜯어 갔습니다. 그는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자는 법정 소송을 통해 재산을 많이 빼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여자들도 이 여자의 법정 소송에서 성공한 예를 듣고 자기들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자는 얘기하길 "와, 나도 은퇴하고 싶어. 나도 저 남자와 약 6개월 정도 살고, 후에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볼만한 일인걸" 하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그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모르다니.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슬픈 이야기 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대단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 그를 사랑하는지 앎는지 모르고 여자들은 돈을 보고 그를 좇아 다닙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그에게 친절한 걸까요? 그의 은행에 있는 돈을 빼내고 싶은 것일까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I have a cousin who's so rich as far as money goes. The poor fellow is over in the Philippines somewhere with a butterfly net chasing butterflies through the jungles. That's how he spends his life, chasing butterflies through the jungles. Worth millions of dollars, he's never worked a day in his life, but life is a bore, life is a drag. The only excitement he has is chasing butterflies. Poor fellow. Next to him I'm rich.

내 사촌 중 하나는 셀 수 없을 만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내는 필리핀 어디에선가 정글을 누비며 나비를 채집하러 다닙니다. 그의 온 인생을 정글에서 나비 잡으러 다니느라 다 써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들, 하지만 그는 자기 일생 중에 단 하루도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인생이 지루해서 질질 끌려 다닐 뿐이죠. 그의 인생의 유일한 흥미거리가 바로 나비채집입니다. 불쌍한 친구죠. 그 사람 다음으로 부자가 있다면 바로 나일 것입니다. 11 절,

But thou, O man of God, flee these things (6: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6:11);

Flee what? The love of money.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follow after righteousness (6:11),

의를 좇으며 (6:11),

Pursue after righteousness. Don't pursue after wealth, after being rich; pursue rather after righteousness.

바울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부를 좇지 말고 의를 좇으라고 합니다. 공의를 좇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godliness (6:11),

경건과 (6:11),

There is that word again.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지요.

faith, love, patience, meekness.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and lay hold to eternal life, whereunto thou art also called, and hast professed a good profession before many witnesses (6:11-12).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 하였도다 (6:11-12).

So it all comes down to what is the center of your life. If money, the desire for money, the desire for gain is at the center of your life, then you're going to be a miserable person. If God is at the center of your life, you're going to be rich, your life is going to be blessed, your life is

going to be full. So put God at the center of your life, put righteousness at the center of your life, godliness at the center of your life, that you might really be a rich person. Enjoy the true riches, the eternal riches.

그래서 그것 전부다 당신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 즉 돈에 대한 욕망이면, 유익을 얻고자하는 욕망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있고 당신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은 부요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부디, 그의 공의를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또 경건을 인생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부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 즉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Because one of the tragic things about my poor cousin is the only one he has to leave his money to is an idiot niece, his daughter. It's tragic, isn't it? But she's already got so many millions, you know, but she lives in a care home in Ojai. She's not able to take care of herself. Her grandmother died recently and left her another seven million dollars but it's all under trusteeship while she just sits there in the home and puts peanut butter on Ritz crackers. That's tragic, isn't it?

내 어리석은 사촌에 관해 정말 비극 중의 하나는 그에게 무남독녀가 있는데 그 바보같은 딸에게 그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딸은 벌써 수 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며 오자이 (Ojai) 에 있는 보호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딸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수 없습니다.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 백만 달러를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그 돈은 신탁통치에 맡겨졌고 그 아이는 보호소에 살면서 크래커에 땅콩 버터만 발라 먹고 살아갑니다. 정말 비극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I went to visit her and she said, Oh, I have this special recipe, I want to, I want to fix for you this special recipe. She brings out all these Ritz crackers with peanut butter. Oh, she made these up herself, you know. Poor child, my heart goes out to her. I really, my heart does go out to her. I wouldn't trade places with her for anything, with all of the bucks that she has, or my other cousin. I wouldn't trade with him for anything with all of the bucks he has. I wouldn't want to be running around some jungle in the Philippines tonight, you know, chasing butterflies.

내가 그 애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나한테 기가 막힌 요리법이 있어요. 내가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낸, 땅콩 버터를 바른 크래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애가 손수 만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위치와 안 바꿀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진 그 아이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 사촌도 마찬가지요. 그가 가졌던 그 많은 돈을 다 준다고해도 내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필리핀 장글을 쫓아 다니며 나비를 잡지 않겠습니다.

God at the center of your life; it's a life that is content, a life that is happy, a life that is rich, a life that is full.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고 부요함으로 만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I give you charge [he said] in the sight of God, who makes all things alive, and before Christ Jesus, who before Pontius Pilate witnessed a good confession (6: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6:13);

“Pilate said, Art thou a king then? And Jesus said, To this end was I born and for this cause I came to the world” (John 18:33,37). Good confession before Pontius Pilate. So this is going to be heavy, heavy duty charge. “I charge you before God, who makes all things alive, before Jesus Christ,”

요한 복음 18 장에, “빌라도가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요 18:33, 37) 라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한 대답 이였지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물을 살게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That you keep this commandment without spot, unrebukeable, until the appearing of our Lord Jesus Christ (6: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6:14):

Now he gave them this commandment; what was it? To make God the center of your life, to seek after righteousness and godliness. I charge you before God, do this until the Lord comes again. Keep Him at the center of your heart and life. What did Jesus say about this? He said,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taken care of” (Matthew 6:33).

바울이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였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의와 경건을 구하라는 것이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요?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고 하셨습니다.

You see, man’s life exists on two plains,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The vertical plain is y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 is the axis upon which your life revolves. If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out of kilter, then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ellowman is going to be out of kilter, out of balance. And this is the problem in our world today. People are trying to live a well-balanced life and they are struggling and striving to have a well-balanced life, to have a well-balanced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ey’re fighting constantly to find this balance in relationships, spending millions going to the psychologist and psychiatrist trying to find the balance. The reason why the life is out of balance, the reason why your relationships are out of balance, is that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out of balance. The vertical axis of your life is off center.

인간의 삶은 두 평면에 존재하는데, 하나는 수직이요 다른 하나는 수평입니다. 수직평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축으로 하여 인생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균형을 잃으면 곧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문제가 생겨 모든 관계의 균형에 이상이 생기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균형이 잘 맞는 삶을 살려고 분투하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균형을 이룬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싸우거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돈을 수백만불씩 소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을 잃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직 축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Now Paul is giving to Timothy fantastic advice. Put God at the center of your life. Godliness, righteousness, put these things at the center of your being. I charge you before God, do this until Jesus comes. Because if the center of your life is right, if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ight, then you will be a very rich person, because it will affect every other relationship in your life. They will all be right if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ight. You'll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the devil; you'll defeat him everytime you meet him because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ight. You'll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your possessions, for you will know that they are really God's, and only entrusted to you and you'll use them wisely. You'll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your fellowmen, sharing, loving, giving.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훌륭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 인생의 중심에 모시되, 경건과 의로움을 네 자신의 중심에 두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꼭 지켜라” 하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바르면, 즉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여러분은 아주 부요하게 될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관계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맺고 있음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만날때 마다 그를 패배시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료들과도 나눠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좋은 관계를 유지 하십시오.

God at the center, the vertical axis, the horizontal automatically falls into place. You cannot correct the horizontal axis by working on the horizontal. I mean, you can't correct the horizontal plain by working on the horizontal plain. I'm going to work on this relationship. While you're working on this relationship, you're messing up five more. Spending too much time trying to get this relationship right and everything else is going wrong. So you finally get this one right and you turn around and oh man, everybody else, oh help. So you grab a hold of another. I'm going to work on this relationship. While you're getting that one corrected, another goes out of balance.

수직 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수평은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평에서 일하면서 수평의 축을 바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평면을 조절하여 수평면을 바르게 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잘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바르게 하는 동안 다섯개를 더 망가 뜨릴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고 나면 다른 모든것들이 잘못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드드여 하나를 바르게 하고 나서 돌아보면 다른것들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있습니다. 오 맙소사. 그래서 당신은 다른 걸 분드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고칠게. 당신이 하나를 고치는 동안에 다른것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And so you spend your whole life trying to get balanced here, you know, when in reality you need to come back to the vertical axis, get your relationship with God.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other things would be taken care of.” They'll all be added to you. So that is why Paul is so forceful in charging Timothy to get your life right with God. Put God at the center. Seek after righteousness and godliness. For when Jesus comes,

우리는 그 규형을 잡으려고 우리의 전생애를 바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 축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해결되리라.” 모든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삶을 하나님과 바르게 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의와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이 오실때,

(15 절 과 16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In his time he shall show, who is the blessed and only Potentat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Who only hath immortality, dwelling in the light which no man can approach unto; whom no man hath seen, nor can see: to whom be honour and power everlasting. Amen (6:15-16).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찌어다. 아멘 (6:15-16).

So Jesus when He comes is going to show who the true, the only God is. “The only and blessed Potentate,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who only hath immortality, who dwells in a light which no man can approach; whom no man hath seen.” In John, the first chapter, we read,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but the only begotten Son,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manifested him” (John 1:18). But Jesus will show us then who is the only true God.

예수께서 오시면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요한복음 일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 1:18) 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Now you see, riches are not a true God. They are a false God, but they are the god of many people. Many people are worshipping wealth; it’s the center of their life. And you don’t have to be wealthy to have it at the center of your life. In fact, it probably is a problem that is almost more endemic to poor people than it is to wealthy people, because poor people so often live under the illusion that wealth would be the solution to all their problems. Wealthy people know that that’s not so, but poor people think that it would be so. All my problems would be solved by wealth. So the love of money can actually be a stronger drive in a poor person than in a rich person. It is not a true God. It is a false god. When Jesus appears, He will show us who is the true God. “The only Potentat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아시다시피, 재물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하나님 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예배하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재물은 부자들에게 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야 말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착각 속에 자주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자들은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부자들에게서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참 신이 아니라 거짓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신 유일하신 능하신 자이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And so he said, Timothy,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Charge those that are rich in this world, that they not be highminded, nor trust in the uncertainty of riches, but teach them to trust in the living God who gives us richly all things to enjoy (6:17),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6:17),

This whole area now is on who is your god? Riches your god, the desire for money your god, it's at the heart of your being. Or are you living a godly life, a righteous life, serving the only true and the living God? "Charge those that are rich in the things of this world, in the worldly things, that they not be highminded, and don't trust in your riches, they are uncertain, but trust rather in the living G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

I love that. God gives to us richly all things to enjoy. All the money in the world can't buy the thrill of sitting on the beach and watching the sun set behind Catalina Island. And just enjoying the sky that lights up in brilliant color. And just sitting there and communing with God; what a rich experience that is. What a rich experience it is to walk through the forest and smell the pine needle and hear the waterfalls and the singing brooks and the blue jays and the chatter of the squirrel. God has given to us richly all things to enjoy. God wants you to enjoy life. God wants you to have the fullness of joy in your life. And He has given you the laws by which, the rules by which you can have a life that is filled with jo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돈을 다 준다 해도 해변가에 앉아서 카타리나 섬 뒤로 넘어가는 해를 보는 감동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을 마냥 즐기며 그 아래 앉아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값진 경험인지 모릅니다. 숲을 따라 거닐며, 솔잎 냄새를 맡고 들려오는 폭포수와 흐르는 시냇물소리, 어치들과 수다쟁이 다람쥐들의 장난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즐기도록 풍성히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삶을 즐겁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가지도록 율법과 규정을 주셨습니다.

Our problem is that we don't always agree with God. We think that many times God has set rules that are too restrictive, that they are holding me back from joy or from something that would be pleasurable or exciting. And I find myself rebelling against the law of God saying, God, you're not right, you know, it isn't fair to deny me that because if I could only do that, then I would really have joy and happiness. But everytime we defy the law of God, we find it brings misery and sorrow to ourself.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셔서 즐길수 있고 감격스러운 것들을 뒤에 숨겨놓고 즐기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에 반항하는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맞지 않아요. 내가 그걸 못하게 하시니 불공평해요. 그 이유는 제가 그걸 할수 있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것 같거든요. 하지만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으로 우리 스스로 고통과 슬픔에 빠집니다.

God has given us the rules of happiness and the rules of joy. “Happy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the scornful.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does he meditate day and night. Where he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rivers of water, bringing forth fruit in his season; his leaf also shall not wither; whatever he does will prosper. The ungodly are not so: but are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Therefore the ungodly shall not stand in the day of judgment” (Psalm 1:1-5). Oh the happy man is the man who has put God at the center of his life because when God is at the center of my life, I can then enjoy all that God has given to me. I can enjoy it fully. For God has “given to me all things richly, freely, richly to enjoy.”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법과 행복의 법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 1:1-5).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껏 즐길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것을 즐기도록 풍성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And so, “Charge those that are rich,” 부한 자들에게 명하기를,

That they do good, and that they be rich in good works, ready to distribute, and willing to give to those that are in need (6:18);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 했는데 (6:18);

The word “communicate” is that of communicating of help unto the needy. For in so doing, they will be

“나눠주다” 는 말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그들은

Laying up in store for themselves a good foundation against the time to come, that they may lay hold on eternal life (6: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 될 것입니다. (6:19)

Jesus gave a parable that has been a problem for many people to understand. The parable was of a servant who found out he was going to get fired. His master said, Okay, make an accounting of everything, you know, you're fired. Servant says, Hey, what am I going to do? I'm ashamed to beg. I don't want to dig ditches. I know what I'll do. And he started calling in the creditors. How much do you owe my boss? I owe him a hundred measures of meal. Here, let me have your bill. Scratch out a hundred. Fifty. Called in another creditor, how much do you owe my boss? Oh, a hundred barrels of oil. Here, fifty. And he cut all of the bills in half figuring as soon as he's fired, he'll go and say, Hey, remember how I wiped out fifty barrels of oil off your bill? I need a little bit. Could you help me? He was taking advantage of his present situation to set himself up for the future. He knew he wasn't going to always be in this position of helping himself for the future; it's going to be short-lived. He was going to be fired in a week, so, you know, take advantage of my present position to hedge for the future.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비유는 자기가 곧 해고될 것을 알게 된 한 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말하기를, “모든것을 다 회계하라. 너는 당장 해고다” 라고 했습니다. 종이 스스로 말하길,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빌어 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팔아 노동하며 살고 싶지는 않으니,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그는 채무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인한테 당신이 얼마를 빚을 졌던가요?” “ 아, 난 곡식 100 말을 빚졌는데.” “ 그래요? 자, 여기 청구서가 있소, 여기 100 말을 지우고 50 말로 고치시오.” 그리고 또 다른 채무자를 불러들여서 말하길, “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 아, 나는 기름 백 말을 빚졌소” “ 아, 그래요? 당신도 여기다 50 이라고 적으시오” 그렇게해서 그는 모든 청구서의 금액을 반값으로 해 주었고 곧 그는 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 채무자들을 찾아가 말하길 “ 당신 내가 당신이 빚진 것을 반값으로 해 준 것 기억하죠? 자, 내게 얼마를 주시오. 그럴 수 있죠?” 그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장래에 도움이 될 이러한 위치에 항상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이내에 해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위해 현재의 위치를 이용합니다.

Now Jesus said, The Lord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And that's where the parable runs into difficulty. Commended him? He ought to have condemned him. He should have thrown him in jail. He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for Jesus said, The children of this generation are wiser than the children of light. Therefore,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that when you die, you might be received into the everlasting habitations (Luke 16:1-9).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점이 이 예화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칭찬하셨다고요?

그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집어 넣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인은 자기의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눅 16:1-9)

What was He talking about? Right now, I have the opportunities of laying up for myself treasures in heaven. I will not always have this opportunity. The day is coming when I will die. After I die, I will have no further opportunity of laying up for myself an eternal heavenly store. That opportunity is only now while I am here.

지금 그가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 천국에 보화를 쌓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날이 닥아오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영원한 하늘창고에 쌓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오직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일 뿐입니다.

Jesus said,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You see, your money, your dollar is not worth anything in heaven. It’s not worth very much here, but it’s worth nothing in heaven. If you could take them there, if you could carry them out, if when you die you could take a suitcase full, when you get to the gates say, Hey, Peter, look what I brought, you know. Show me the nicest room you’ve got. Peter will say, What’s that junk? Your money is not current in heaven. Here I brought all this gold. No, throw it in the street. Let it mix with the rest of the pavement. We use that stuff for asphalt up here.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이나 달리는 하늘나라에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별로 가치가 없는데, 더구나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걸 가져갈수 있다면, 그걸 죽을 때 커다란 가방에 가득 채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천국 문에 들어서서 이렇게 말하겠죠. “ 베드로 선생님, 제가 뭘 가져 왔는지 좀 보세요. 제게 가장 좋은 방을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 그건 무슨 쓰레긴가? 자네 돈은 천국에선 쓸수 없어.”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 금도 몽땅 가져왔는걸요.” “ 그것도 저 길에다 갖다 버리게. 섞어서 도로 포장에 쓰게. 여기서는 그것을 아스팔트로 사용한다네.”

So, my only opportunity of laying up an eternal heavenly store is now. So “charge those that are rich that they do good, that they be rich in good works, that they are ready to distribute to the needy, and to help those that are in need.” That they might lay up for themselves a store in heaven, a good foundation against the time to come that they might enter into that eternal kingdom. “Laying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 and rust do not corrupt or decay, thieves cannot break through and steal” (Matthew 6:20).

영원한 천국 창고에 나의 보화를 쌓아 놓을 기회는 오직 지금 뿐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게 하라.” 이것이야 말로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 좋은 기반을 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 질도 못하느니라“ (마 6:20).

So rich on earth, poor in heaven. How long you going to be on earth? Hundred years? How long you going to be in heaven? Poor on earth, rich in heaven. Who's better off? So I don't have much. So it is tough. I have all I need. I'm happy. I'm satisfied. I don't have any real needs or real wants. I'm rich. But more than that, hey, the eternal riches. Rich eternally.

세상의 부자는 천국에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얼마나 계실 생각이십니까? 100 년이요? 그럼 천국엔 얼마 동안 계실겁니까? 세상의 가난한자는 천국의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더 낫습니까?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 가졌으니까요. 나는 행복하며 아주 만족합니다. 더 필요할 것이나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자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영원한 부자, 영원토록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Issues that I debated years ago when I was debating between a career as a medical doctor or as a minister. Where do I want my riches? Now or forever? It makes good sense to me to be rich eternally more than to be rich temporally. It makes better sense for me to lay up my riches in heaven where I might enjoy them world without end, than to try and amass riches now, which can only bring misery and strife and unrest. The true riches.

오래 전에, 내가 의사가 되야 할지 아니면 목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의 보화를 두겠습니까? 지금을 위한것입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한것입니까? 나는 일시적인 부자가 되느니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끝이 없는 세상에서 즐길수 있는 천국에 나의 보화를 쌓는것이 궁핍과 분쟁 그리고 걱정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요한 것입니다.

O Timothy, keep that which is committed to your trust, avoiding the profane and vain babblings, and the oppositions of science falsely so called (6:20):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6:20):

You want to know what is the greatest science falsely so called in the world today? Evolution. They call it science but it's falsely called science. There's nothing scientific about the evolutionary theory. It's science falsely so called. Vain babblings, profane and vain babblings. Paul said avoid them, Timothy.

여러분은 오늘날 이 세계에 살면서,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가장 커다란 거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속여서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건 거짓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속여서 과학이라 부를 뿐입니다. 공허한 말들이며, 망령된 말일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은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Which some professing have erred concerning the faith. Grace be with thee. Amen (6:21).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찌어다 (6:21).

Paul's first letter to Timothy.

여기까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the good counsel. May we take heed, and Lord, may we indeed seek to put Christ at the center of our lives, godliness at the center of our being. Keep us, Lord, from the delusion and the lie of the enemy that would say that godliness is a way to riches. But God, may we not have riches as the motive and the center, the master passion of our lives knowing that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evil, has destroyed so many people. Oh God, give us wisdom to put You first.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보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주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되, 모든 미혹된 것들과 세상의 부를 좇으라고 말하는 악한 것들의 거짓말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과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지혜를 가르치사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give you a blessed week and may you go out and begin to enjoy all things richly that He has given to you. Begin to enjoy those eternal riches that you have as a child of God. May God help you to just sort of slow down from this mad drive for more and just begin to enjoy what you have. May He give you some blue skies to observe, clouds. Get on down to the beach. Sit there and just watch it and commune with God. Enjoy what God has given to you. And may your life be enriched and blessed as you walk in fellowship with Him, God at the center. In Jesus' name.

이 주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즐겁게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영원한 부요을 즐기기 원하며, 우리를 흥분 시키는 것들을 거두어 주시사 우리가 가진 것들로 기뻐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푸른 하늘과 구름, 그리고 바닷가도 보게 하시기를 감사하십시오. 그 가운데 앉아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부요하게 되고 더 큰 축복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